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죄와 벌의 관계로 본 <속향전>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서 신 애

죄와 벌의 관계로 본 <숙향전>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서 신 애

인 준 서

서신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숙향전〉은 창작시기를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지만 17세기 말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전소설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숙향전〉은 숙향과 이선, 그 밖의 등장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한 지상에서 겪게 되는 형벌과 속죄가 첨예하게 얽혀서 핵심적 구조를 이룬다. 즉 적강구조가 작품 곳곳에 온전히 실현되어 이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여타의 적강형 소설과 구별되는 〈숙향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숙향전〉의 적강은 기존논의에서도 중심축으로 연구되었지만 죄와 벌의 구조까지 연구의 폭이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숙향전〉의 적강을 죄와 벌의 관계망 속에서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숙향전〉의 특이점에 주목해 각 인물별 적강 형상을 면밀히 살폈으며 또한 〈숙향전〉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적강형 소설인 타 작품과는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지 〈숙향전〉과 유사한 적강형 소설들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강이 주인공에만 집중되어 서사가 진행된 여타의 적강형 소설과는 달리 〈숙향전〉의 서사는 주인공과 그 밖의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천상계와 연관되어 지상에서도 빈틈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작가는 〈숙향전〉의 주인공 숙향을 중심으로 각 인물들을 배치하여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죄와 벌의 관점으로 서사를 진행시켰다.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적강의 정형적 구조인 순환체계가 〈숙향전〉에선 주인공과 그 밖에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인과적으로 치밀하게 구현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인 적강의 논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숙향전〉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또한 왜 그토록 철저하게 〈숙향전〉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죄와 벌이라는 적장의 틀 속에서 구현해 내고자 한 것일까? 이는 당대인들의 사고관념, 즉 작품속의 인물들과 작품을 접하는 대중들의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숙향전〉의 등장인물들은 작품 속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죄와 벌을 대하는 태도는 그 경중에 상관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현세의 일, 즉 고난과 벌이 자신들의 천상죄업 때문임을 숙지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당대인들의 중세의 사고방식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숙향전〉의 등장인물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믿고 있었기에 죄에서 벗어나려거나 반항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천상 업 때문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결국 〈숙향전〉은 천상죄와 지상벌이라는 적장의 틀에 기대어 문학적 장치로 풀어낸 작품이며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믿던 당시의 사고관념이 대중들에게도 관통하고 있었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천상세계를 믿으며 자신의 고단한 현세는 전생의 업과 관련 있다고 믿는 인간 원죄의식에 기대어 작가는 〈숙향전〉을 창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천상죄인이었던 작중인물들이 현세의 벌을 감내하는 과정은 인간 삶의 여정 속에 맞닥뜨리는 고난이기도 하기에 이들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은 대중들의 마음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숙향전〉의 작가가 등장인물들 간의 천상에서부터 얽힌 관계를 지상으로까지 재현하여 죄와 벌로 서사를 풀어낸 것은 작가의 창작 의도에 의한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숙향전〉의 인물들 각자가 지은 천상 업으로 인한 죄의 형벌을 지상에서 치르는 동안 그들 사이에 얽힌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게끔 만들어 나간다. 죄와 벌도 각각 다르게 적용시켜 타인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기도하고, 가해자 · 피해자 ·

원인제공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반목과 대립적 상황을 만들어냈던 관계들을 지상형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이전의 갈등이 해소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천상의 업 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를 겪었던 관계가 지상 죄업을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숙향전〉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천상죄업에 대한 죄값을 지상형벌을 통해 모두 치러 내게 되자 현세에서 막혔던 고단했던 삶은 그들이 소망하던 조화롭고 안정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적강의 논리에 의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대동화합을 반영한 작품이 〈숙향전〉이라 볼 수 있다.

핵심어: 〈숙향전〉, 적강구조, 천상 죄, 지상형벌, 등장인물간의 관계, 이원론적 세계관, 유기적 연관성, 소통부재, 관계회복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 대상 및 방법	14
II. 적강형 소설의 특징과 〈숙향전〉의 죄와 벌	17
1. 죄와 벌의 관점에서 본 적강의 개념	17
2. 적강형 소설의 구현양상	20
1) 적강담 강화	20
2) 애정담 강화	24
3) 군담 강화	28
III. 죄와 벌의 관계에서 본 등장인물과 서사적 의미	34
1. 가해자로서 고난극복, 숙향	36
2. 피해자로서 고통의 체험과 극복, 김전부부	54
3. 원인제공자로서 애정성취, 이선	59
4. 대변자로서 고통과 선의 실현, 장승상부인	69
5. 은닉자로서 구원에 따른 조력, 용녀	73
IV. 죄와 벌의 관계에서 배제된 등장인물의 서사적 의미	82

1. 관계의 역전과 애정회복, 설중매.....	83
2. 베품과 타인을 위한 삶, 마고할미.....	89
V. 결론.....	95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숙향전〉은 고전소설 중 오랜 시기동안 애독되었던 작품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며 대중적인 작품이다. 연구자들도 〈숙향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해왔기에 작품만큼이나 분석도 집중되어 있다. 〈숙향전〉이 다각도로 많은 논의가 진행된 작품이긴 하지만 〈숙향전〉이 여타의 고전소설에 비해 천상과 지상의 연결고리가 첨예하게 드러나며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대다수가 적강한다는 점이 본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선남선녀이자 재자가인의 대표 격으로 알려진 우리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죄를 지은 인물들이다. 원래 천상계에서 상제를 모시고 있었던 존재였지만 사소한 죄를 저질러 천상의 규율을 어기게 되고 그로인해 지상으로 쫓겨났기에 이들에게는 원죄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쳐하는 지상계는 이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내야 하는 귀양지이다. 일반적으로 천상계는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 즉 지상의 낙원 같은 곳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작품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천상계는 각종 규율과 법도를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는 곳이다. 조선이라는 당대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연관시켜 볼 때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상제가 정해놓은 이 천상계의 법규를 어겨 죄를 저질러 절해고도로 유배 가는 조선시대의 지배층, 혹은 유학자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 지상세계로 유배를 오는 것이다.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적강이라고 하는데 고전소설에서 적강은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다. 적강이란 상제를 모시고 있던 선

관 · 선녀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유배 오는 것을 말한다.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 지상으로 내려온 인물들은 지상에서 일정기간 죄 값을 치르고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천상에서 득죄하고 지상으로 적강했다가 다시 천상세계로 복귀하는 구조를 가지는 적강모티프¹⁾는 고전소설에서 친숙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티프는 영웅소설, 애정소설, 장편소설 등에 걸쳐 두루 나타나며 이는 주인공의 특수성과 비범성이나 남녀 애정의 실현을 위해 적강모티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영웅소설인 <유충렬전> · <소대성전> · <장백전> 등 그 밖의 영웅소설의 주인공도 적강한 인물이 대다수며 <운영전>의 운영과 김진사도 적강한 인물이며 판소리계 소설로 널리 알려진 <춘향전> (완판 <춘향전>)의 춘향과 경판본 <심청전>의 심청과 심현도 천상에서 적강한 인물들이다.

<숙향전>의 주인공 숙향과 이선도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유배 온 존재들이다. 더욱이 서사의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주변 인물들도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죄인들이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는 타 작품에서 흔히 다루는 죄와는 구별된다. 여타의 고전소설이 관습적이고 관념적으로 죄를 논했다면 <숙향전>의 죄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숙향전>의 바로 이러한 점들, 여타의 고전소설보다 등장인물들의 죄가 선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기로 하였다. 특히 <숙향전>에선 왜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등장인물이 천상의 죄인으로 등장하며, 작품에선 이들의 죄와 형벌을 인과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적강모티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성현경(「적강소설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9.)과 안동준(「적강형 애정소설의 형성과 변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1988.)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성현경은 적강모티프에 초점을 맞추어 고전소설의 구조가 적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규명하였고 안동준은 적강형 애정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을 분석하였다.

〈숙향전〉은 지상계가 천상계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그렇기에 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상계의 개입이 활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는 주인공 숙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천상과 지상을 소통하며 인물들 간의 갈등과 화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갈등을 일으키던 이들의 관계는 지상에서 형벌과 속죄를 통해 하나씩 해결되어가며 이러한 해결 방식들이 순차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점이 〈숙향전〉의 개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는 단순히 벌만 받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속죄를 통해서 해소되고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인물들과는 최종적으로 화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숙향전〉에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적강이 대다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물별 적강 형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구체적인 죄와 형벌의 동기와 원인은 무엇이며 속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극적으로 갈등을 이루던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기존의 논의들은 〈숙향전〉을 인간 운명에 따르는 숙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²⁾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일면 동조하지만 그보다는 〈숙향전〉의 인물들이 천상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전개되는 벌이나 속죄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갈등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해소된다는 점에 더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숙향전〉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숙향전〉과 유사한 적강형 소설³⁾을 함께 살펴보면서

2) 이상택(「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회, 1971.)과 성현경(앞의 책)의 논의, 신재홍의 (「〈숙향전〉의 미적 특질」, 『고전소설과 삶의 문제』, 역락, 2012.) 등 다수의 논의가 있다.

3) 여기서 적강형 소설이란 뜻은 소설을 분류할 때 하위유형의 한 종류로서의 적강형소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적 측면에서 볼 때 작품 내에 반영된 적강담이 드러난 소설을 서술의 편이성을 위해 적강형 소설이라 명하며 본고에서는 적강형 소설을 이 같은 용어로 쓰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숙향전〉은 작가는 알 수 없지만 창작시기는 다른 고전소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세기 말로 추정되는 작품이다.⁴⁾ 〈숙향전〉은 오랜 시간동안 애독되었는데 그 인기는 현존하는 이본이 총 56종에 달할 만큼 많은 이본이 있다는 점, 문헌의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점, 여타의 작품들 즉 〈춘향전〉과 〈배비장전〉의 내용 중 〈숙향전〉이 거론 된다는 점, 일본인 역관들에 의해 우리말 학습 교본이었다는 점⁵⁾, 당시 전기수들의 단골 레퍼토리⁶⁾였

-
- 4) 창작시기는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위응은 심수관본을 대상으로 음운표기가 16세기에서 음운학적 측면에서 〈숙향전〉의 창작시기를 검토 16세기 말 내지 17세기 초로 규정하였다. 이상구는 옥소 권섭의 자료, 『남행일록』과 〈숙향전〉 내용 중 여부인의 이상서 질책발언을 근거삼아 숙종대의 기사환국을 반영하고 있기에 〈숙향전〉의 형성시기를 17세기 말로 보았다. 조희웅은 역관이던 우림방초의 18세기 초 문헌을 근거삼아 〈숙향전〉이 17세기 말에는 형성되었을 문헌으로 것으로 보았다. 안동준(앞의 논문, 30쪽)도 명화적의 출현, 기아의 발생 등 17세기 말의 사회상황과 〈숙향전〉의 내용이 상통하고 도불사상이 선서(善書)와 민화(民話)에 등장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17세기 말에 형성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 5) 某가 35세시(1702)에 參判使都船主로 조선에 처음 건너갔다. 그곳의 모습을 견문했던 바, 다시 信使를 보낼 때에 조선어를 모른다면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마로 돌아오자마자 조선어에 능통한 사람 밑에 가 학습을 한 다음, 이듬해 36세시에 조선에 다시 건너가 꼭 2년간 머무르며 交隣須知 1책·西年工夫 1책·乙酉雜錄 5책·常話錄 6책·勸懲故事諺解 3책을 짓고 그 밖에 淑香傳 2책·李白瓊傳 1책을 스스로 베끼어 매일 통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 학습하였다. 우친의 때에는 수문군관 혹은 통사를 불러 공부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바는 한여름 炎天下에 통사들에게서 돌아와 배웠던 말들을 베낄 때에는, 눈이 침침해질 정도였어도 ‘목숨을 5년쯤 단축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晝夜로 방심 않고 힘썼다. (조희웅·松原孝俊 「숙향전 형성연대 재고-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121쪽.)
- 6) 傳奇叟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 蘇大成, 沈清, 薛仁貴等傳奇也 月初一日坐第一橋下 二日坐第二橋下 三日坐梨峴 四日坐校洞口 五日坐大寺洞口 六日坐鍾樓前 溯上既 自七日沿而下 下而上 上而又下 終其月也 改月亦如之 而以善讀 故傍觀匝圍 夫至最喫緊甚可聽之句節 忽默而無聲 人欲聽其下回 爭以錢投之曰 此乃邀錢法云. 조수삼, 〈奇異〉, 傳奇叟, 『秋齋集』 7, 한국종합DB.

다는 사실만으로도 〈숙향전〉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인기만큼이나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논의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작품의 형성시기에 대한 논의, 이본에 관한 연구⁷⁾, 그 성격과 세계관이나 구조, 서사적 특성, 무속적 성격에 관한 논의⁸⁾ 등 작품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그의 개론서나 소설론에서의 언급 까지 합친다면 그 성과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숙향전〉은 이처럼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온 작품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논의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⁹⁾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 중 본고에서는 본 연구의 방향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김기동¹⁰⁾은 〈숙향전〉이 도선사상에 입각해서 쓰여진 소설로 플롯이 도선적인 전기성을 띠고 있고 대부분의 플롯이 비현실적으로 결구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사건전개의 대부분이 도선적으로 결구되어있기에 〈숙향전〉을 도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본 것이다. 또한 이선의 구약 여행 시 온갖 마물의 방해를 겪는 것은 중국소설 〈서유기〉를 모방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숙향전〉은 적당한 남녀주인공들이 온갖 고난 끝에 지상에서의 가연을 맺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애정소설의 주제성을 띠고 있으나 남녀주인공의 애정담보다 여주인공의 고행담을 더 많이 표현해 놓았다고 보았다. 이후의 논

7) 차충환의 〈숙향전〉이본 연구,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이상구, 〈숙향전〉국문본의 특성과 계통, 『민족문화연구』 26,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지연숙, 〈숙향전〉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제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8) 신재홍은(앞의 논문) 〈숙향전〉이 다른 고전소설에 비해 어떤 미적 특질이 있는지 작품 속에 나오는 소재들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숙향전〉은 우리의 무속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았다.

9) 〈숙향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생태적 사유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기대(〈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의 논의와 〈숙향전〉이 일상계/ 초월계의 양분구도가 매트릭스의 현실/가상현실의 구도와 닮았다는 점에 착안, 〈숙향전〉을 매트릭스와 함께 비교 논의한 한길연(매트릭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숙향전〉의 의미와 가능성,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의 논의가 새롭다.

10)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이우출판사, 1983, 433쪽.

자들은 대부분 김기동의 논의를 따르고 있다.

이상택¹¹⁾은 <숙향전>에서의 위기는 하늘이 정해진 운명의 것이기에 천상적인 의도의 반영일 뿐이라며 신성성의 절대적 권능을 충실히 확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상적인 것을 빌려왔다고 보았다. <숙향전>의 인물들을 천상계의 주재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개성 없는 꼭두각시로 본 것이다. <숙향전>에도 애정의 갈등은 있지만 주인공의 자발적인 갈등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든 것이 미리 설정되고 주어져 있어 주인공은 상황 속을 통과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조동일¹²⁾은 <숙향전>은 여성의 일생을 잘 다루고 있는 영웅소설로 분류해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에서 다른 영웅소설들과 함께 <숙향전>을 다뤘다. <숙향전>이 영웅의 일생을 충실하게 이었으면서도, 군담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인공이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천상의 조력자들이 도와주고 영웅으로서의 능력은 제거된 채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구조를 갖춘 점에서 영웅소설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숙향이 이상서와의 적극적인 대결을 펼쳐 애정을 수호했다는 점을 들어 <숙향전>은 여성의 입장에서 애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은 작품이라고 보았다. <숙향전>을 영웅소설로 본 것에 대해 서대석¹³⁾은 반론을 제기했다. 숙향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약을 전개한 것도 아니며 수난의 극복 과정도 초월적 존재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고 배우자를 만나려는 노력만이 숙향 자신의 의지적 행위이고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숙향전>에서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지 국가나 사회 등 집단의 문제가 아니기에 숙향을 영웅이라고 할 수 없다

11) 이상택, 「고전소설의 유형적 이원성」,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새문사, 2003.

12)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2012, 362쪽.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4, 528~529쪽.

1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4.

고 한 것이다.

성현경¹⁴⁾은 우리의 고전소설에 상당히 많은 적강화소가 수용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소설 중 적강구조를 기본 구조로 하는 작품 46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숙향전〉은 적강요소가 작품 전반에 고르게 나타나 있는 점을 들어 구조상 적강형 소설의 원형으로 인정되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성현경의 논의는 대상작품이 많다보니 꼼꼼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지만 이들을 분류하여 체계를 세우고 적강형 소설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 적강형 소설의 일정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성현경은 앞서의 논의에서 개략적으로 다뤘던 〈숙향전〉을 단독으로 다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논의¹⁵⁾에선 〈숙향전〉에는 인간의 죄와 벌·탐색 시은과 보은·사랑과 미움·통과의례·신비체험 등을 두루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에 적강형·탐색형·보은형이 중첩된 복합형 소설이자 변신소설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숙향전〉은 주인공이 적강하여 지상에서 유배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랑을 다루되 노골적인 사랑이 아닌 정신적·은유적·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어 고차원적인 작품이며 뒷날 지어진 문장체 소설과 판소리계 소설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성현경의 논의는 앞서 숙명론적으로 보았다면 주인공들이 적강하여 시련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늘에서 예정된 일이긴 하지만 하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운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명론적 입장에서 〈숙향전〉을 본다고 하였다.

황패강¹⁶⁾은 〈숙향전〉은 모든 결정적인 사건들이 상제의 예정론의 틀 안에서 일으켜지고, 전개되고, 결말지어 지고 있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

14) 성현경, 앞의 책.

15) 성현경, 「숙향전 연구」, 『동아연구』 27, 서강대동아연구소, 1994.

16) 황패강, 「동양적 예정론과 소설의 구조: 세창본 〈숙향전〉의 분석적 고찰」, 『겨레어문학』 15, 건국대국어국문학 연구회, 1991.

고 있는 소설이라고 보았다. 〈숙향전〉의 주인공과 대부분의 주변 인물들의 현세 생활은 천상생활의 연장이거나 그것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상제가 정해놓은 운명을 실천하며 최종적으로 천상으로의 복귀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또한 천상에서 선관 선녀였던 인물들은 ‘선민’이기에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인물들(사향, 도적 등)은 이계의 체험이 없는 지상의 인물이기에 소설에서 대수롭지 않게 다루었다고 보았다.

이상구¹⁷⁾는 〈숙향전〉이 그간 환상적 성격에만 치우쳐 논의된 것들을 재검토하였다. 현실적 성격에 주목하여 〈숙향전〉이 당대의 사회현실을 일정 반영하는 현실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데 특히 주인공 숙향은 천상에서 하강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전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일상적인 인물로 성격 지워진 인물로 보았고 숙향이 지상에서 겪는 다섯 가지 고난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로 보았다. 앞서 조동일이 숙향을 영웅으로 보았다면 이상구는 숙향은 영웅이 아니고 나약한 전쟁고아로서 현실세계에 놓여있는 인물로 보았다. 영웅적 능력이 부재된 숙향의 인물적 성격과 고난에 주목하여 숙향을 현실의 고난이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물로 본 것이다. 또한 천상계와 지상계의 분리 없이 겹쳐 나타난 것도 초월적 존재가 나약한 숙향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지상계에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숙향전〉의 환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지상에서 겪는 고난 자체만을 보면 고난의 성격은 현실적이며 조선후기의 역사적 현실과 인정사태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심치열¹⁸⁾은 〈숙향전〉에서 드러나는 도선적 소재나 신이성을 통한 낭만적 분위기가 여타의 작품과는 달리 작가의 철저한 창작의도에 의한 설정에 있다고 보았다. 하여 〈숙향전〉의 공간·시간적인 경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17)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18)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지 살피고 또한 주동인물의 탐색의 기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 <숙향전>의 서사적 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 결과 <숙향전>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경계 해체뿐만 아니라, 전세와 현세 간의 경계 해체가 일어나며 사람·동물들 간의 경계도 허물어져 이들이 공존하는 작품세계를 창출했다고 하였다. 또한 숙향과 이선이 행하는 탐색의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의 기능을, 숙향은 배우자 찾기와 부모 찾기이고, 이선은 배우자 찾기와 선약 찾기로 보았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탐색여행은 각기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보은의 길을 실천하려는 총체적인 의미망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차충환¹⁹⁾은 <숙향전>의 지속적인 인기의 비결에 집중, 고르게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원인이 <숙향전>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요인과 작품의 질적 수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어떠한 측면이 <숙향전>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게 하였고 작품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확인되는지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 보은담 구조에 주목, 거기에 투영된 당대인들의 세계관을 살폈다. 김전과 거북의 보은사건이 작품을 이끌어 가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시혜 보은 구조의 상관성과 거기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살폈다. 보은의 행위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여타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구원과 구원자에 의탁은 고소설의 관습적 형식이지만 <숙향전>에선 일일이 보은하고 있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보고 이점은 작가의 보은관념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숙향전>이 전기수가 구연할 때의 작품 목록에 하나임을 주목하여 <숙향전>의 구술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성격도 함께 파악하였다. <숙향전>의 서사구조가 고난과 해소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점과 숙향의 삶의 행적이 이야기의 구비마다 숙향의 목소리나 타인들의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발화되는 점을 들어 구술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차충환의 구술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19) 차충환, 『숙향전연구』, 월인, 1999.

〈숙향전〉이 전기수에 의해 인기리에 구연되었다는 사실과, 당시 어떻게 구연되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정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유승현²⁰⁾은 〈숙향전〉이 천상의 인물들이 지상에서 시련의 과정을 겪기에 적장소설로 보았으며, 천상에서의 선관·선녀였던 주인공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 당한 채 지상에서 시련을 맞이하고 극복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는 탐색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탐색소설로 보았다. 이들이 상실한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애정이기에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고 또한 자신들의 천정에서 부정된 애정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았다. 유승현의 〈숙향전〉의 순환적 구조와 의미를 밝히기 위한 이 같은 논의는 성현경과 일부 선학들이 〈숙향전〉을 적장소설이며 탐색소설로 정의하고 살핀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명자²¹⁾는 천명을 주목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인공들이 이미 천상계에 의해 정해져 있는 자신들의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자로 파악한 것이 대부분인데 논자는 주인공들이 천명을 품부하되 운명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모습은 간과한다고 보았다. 〈숙향전〉의 천명을 운명과 사명으로 나누어 작품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천명 유형에 나타난 주제적 천명과 도덕적 천명이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작가의 천명관념을 통해 고찰하였다. 〈숙향전〉의 구조와 세계관은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숙향전〉에 나타난 천명에 관한 연구는 천상-지상-천상의 이원론적 구조와 천명에 대한 숙명론적 세계관, 초월주의 세계관 등 천명의 절대적 권능성을 위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관점에서 논의에 접근한 것이다.

20) 유승현, 「숙향전의 순환적 구조와 그 의미」, 원광대석사논문, 1999.

21) 이명자, 「숙향전의 사명으로서 천명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8.

안동준²²⁾은 적강형 애정소설을 적강소설 또는 애정소설 등 어느 한 면으로 다루었기에 독자적인 성격을 주목하지 못하고 적강구조와 결합된 애정소설이 형성하게 된 과정을 밝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소설이 점차 변모되어 다른 갈래의 소설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하여 <숙향전>·<삼생록>·<숙영낭자전>·<쌍선기>·<유문성전> 등 적강형 애정소설의 대상작품을 토대로 기본형과 변이형을 정리, 문학사적 위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 작품 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영웅소설, 판소리계 소설 및 풍자소설과 비교 검토하여 소설사적 위치를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숙향전>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조화로움 속에서 적강의 시련과 애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들어 <숙향전>을 적강형 애정소설의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룬 최선의 성과로 간주하였다.

김경미²³⁾의 논의는 이상구²⁴⁾의 논의에서 출발점을 삼는다. 이상구가 <숙향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현실성이 임·병 양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에 긍정적인 것이다. 김경미도 숙향을 피란 중 버려진 전쟁고아가, 남의 집 하녀·술집기녀로 전락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숙향전>은 버려진 딸의 기억이라기보다 버려진 딸에 대한 아버지, 공동체, 조선사회가 갖는 일련의 죄의식과 그것을 숙명과 보은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기억의 장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숙향전>에 강하게 드러난 보은의 탐색담을 공동체 즉 조선사회가 갖는 일련의 죄의식을 숙명과 보은이라는 외피로 무마하고자 보은의 탐색담이 들어있다고 보았다.

김수연²⁵⁾은 <숙향전>이 고소설 가운데 환상성을 가장 잘 구현한 작품으

22) 안동준, 앞의 논문.

23) 김경미, 「숙향전- '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24) 이상구, 앞의 논문.

25)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숙향전〉을 텍스트로 삼아 신화 및 신선설화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환상성의 근원과 본질을 살피고자 하였다. 기존 논의들이 환상성의 기원과 본질에 초점을 둔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기에, 〈숙향전〉의 환상세계를 현실에 대한 대안세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숙향의 고난과 이선의 구약담을 특선의 과정으로 보았다. 여행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의 특선을 도와주는 스승이 되고 그들이 부여하는 시련 또한 특선을 위한 수련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을 배우며 완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고 소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박하영²⁶⁾은 〈숙향전〉과 〈숙영낭자전〉을 대상으로 두 작품의 주인공들, 숙향과 숙영이 지상에서의 일생을 적장에서부터 승천까지 각 단계별로 분석하여 적강형 애정소설의 구조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적강형 애정소설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적강화소로 인한 작품 전체의 이원성으로 적강화소는 이야기의 공간적 이원성을 담보해 줄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조자체를 이원적으로 확장시키며 작품을 이끌어가는 내적 논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적강화소가 개별 작품들 속에서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을 과거와 현재, 천상계와 지상계로 확장할 뿐 아니라 주인공들의 운명과 성격까지 좌우하는 중심 논리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작품의 주제인 애정에 대한 관점 또한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 인간의 자유로운 성정의 발현인 애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여전히 중세적 질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숙향전〉연구의 기본적 토대를 장만한 점엔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방향성이 일상성이나 환상성 등에 편향된

26) 박하영, 「조선조 적강형 애정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숙향전〉과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 석사논문, 2002.

측면도 있다. 유승현²⁷⁾의 논의는 기존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김경미²⁸⁾는 지금까지 〈숙향전〉에 강하게 드러난 보은의 탐색담을 공동체 즉 조선사회가 갖는 일련의 죄의식을 숙명과 보은이라는 외피로 무마하고자 보은의 탐색담이 들어있다고 보았는데 과도한 해석이 이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다. 김수연²⁹⁾은 〈숙향전〉의 서사를 소통과 화해의 장으로 살핀 점은 본고의 논의와 일견 상통하나 숙향과 이선의 여정의 전 과정을 득선과 선업의 과정으로만 보는 것은 신선설화 즉 환상성에만 치우쳐 풀어낸다는 한계가 있다. 안동준의 논의는 적강형 애정소설의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숙향전〉과 여타의 적강형 애정소설과 비교하여 논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며 본고 논의의 방향과 일치하지만 작품들 비교할 때 각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기존의 논의들은 숙향과 이선, 주인공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숙향전〉은 타 작품과 달리 등장인물군 전체가 유기적 연관성을 작품내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 전체를 동일한 시선으로 분석할 때 작품의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숙향전〉은 숙향과 이선 이외의 인물들의 서사가 작품의 주제와 구조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변 인물들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작품전체의 서사적 틀을 좀 더 정치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용하고 그간 미비하게 다루었던 등장인물들 간의 죄와 형벌의 해결방식, 그리고 이들의 갈등 관계 등을 주목하여 〈숙향전〉의 새로운 면모를 살피고 의의를 보태고자 한다.

27) 유승현, 앞의 논문.

28) 김경미, 앞의 논문.

29) 김수연, 앞의 논문.

3. 연구 대상 및 방법

〈숙향전〉은 죄와 벌의 관계망 안에서 적강의 논리와 구조인 적강 틀이 각 등장인물들과 서사 전반에 걸쳐 온전히 전개되는 작품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논의를 일정수용하고 그를 바탕으로 〈숙향전〉의 등장인물들의 죄와 형벌의 방식을 통해서 인물들의 관계망을 분석하여 〈숙향전〉의 개별적인 특징을 새롭게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적강형 소설의 특징과 〈숙향전〉의 죄와 벌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죄와 벌의 관점에서 본 적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아울러 〈숙향전〉과 유사한 적강형소설을 대상으로 그 구현양상과 숙향전의 특징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II장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함께 논의할 대상 작품으로는 경관 〈심청전〉, 〈백학선전〉, 〈김희경전〉, 〈숙영낭자전〉, 〈유문성전〉³⁰⁾이다. 이들 작품은 〈숙향전〉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III장에서는 〈숙향전〉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서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 대다수가 적강한다는데 주목하여 이들의 죄와 형벌의 방식에 대해 세밀하게 고찰하려고 한다.

각각의 인물들의 죄와 형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하여 이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귀결되는지 그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또한 천상 죄로 인해 각 인물들의 관계가 지상에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이루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30) 대상 작품의 텍스트는 경관 〈심청전〉은 김진영,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백학선전〉은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20,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김희경전〉은 『활자본고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숙영낭자전〉은 김동욱 소장본,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26, 보경문화사, 1991. 〈유문성전〉은 『활자본 고전소설 전집』 5권, (아세아 문화사, 1976) 을 대상으로 한다.

IV장에서는 죄와 형벌의 방식에서 빗겨간 인물인 설중매와 마고할미의 역할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죄와 벌의 관점에서 적강을 철저히 다룬 작품인 <숙향전>은 대다수의 등장인물들이 죄와 벌에 관계된 인물이며 이들의 유기적 관계가 서사의 주요 틀을 이룬다. 그런데 설중매와 마고할미는 죄와 벌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숙향전> 서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다. <숙향전> 서사체계를 보면 설중매와 마고할미는 모든 인물과 연관관계가 있으며 천상에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가는 등,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논의에선 이들에 관해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중매와 마고할미에 대해 장을 할애해 이들이 <숙향전>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숙향전>은 당대 상당히 인기를 끌던 작품이었기에 그 이본수도 상당히 많은 터이다³¹⁾. <숙향전>의 이본 중 선본으로 보는 이본은 대개 이대본과 정문연A본이다. 이들 두 이본은 고유 단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전개도 충실하며, 또 두 이본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숙향전>의 원 모습을 대체적으로 충실히 필사한 이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대본은 정문연A본보다 전반적으로 축약현상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대본은 정문연A본에 비해 압축적이며, 축약과 오류가 몇 군데 있는 점을 들어 내용이 축약·변개되었다고 보았다. 거기에 비해 정문연A본은 문장은 다소 거칠고 확대·부연된 점도 없진 않지만 그 내용은 현존하는 국문 완결본 중 가장 풍부하면서 온전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고 보았다.³²⁾

31) <숙향전>의 이본을 총 56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국문필사본인데 한문필사본도 10여종이 넘으며 경관본, 활자본, 일역본 등 판본이 매우 다양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숙향전>은 국문경관본 3종, 국문필사본 24종, 한문필사본 10종, 한문목판본 1종, 국문활자본 14종, 일역본 4종에 달한다고 한다.

32)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46~147쪽.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 선학들의 논의에 기대어 줄거리 전개에 있어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기본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이본이라고 여긴 정신문화연구원A본³³⁾을 주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정신문화연구원A본은 표제는 “숙향전 권지단”이라는 한글에 “淑香傳”이라는 한문 표기가 병기되어 있고, 1면의 내제는 한글로 “숙향전 권지단”이라 되어 있다. 가로 17.7cm 세로 27.5cm의 크기에, 매면 12행 29자내외, 총 107면의 완결본이다.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인의 필체이며, 약간 서툰 글씨로 꼼꼼하게 필사되어 있어 읽기에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간간히 흘림체로 쓰기도 하였다.³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

33) 본고는 이상구의 논의에 의해 가장 유용한 이본이라고 판단한 정신문화연구원A본을 텍스트로 삼았으며 또한 김진영·차충환교주본(『숙향전 전집』 1, 도서출판 박이정, 1999.)을 참조하였다.

34) 이상구, 위의 논문, 16쪽.

II. 적강형 소설의 특징과 〈숙향전〉의 죄와 벌

1. 죄와 벌의 관점에서 본 적강의 개념

적강의 사전적 의미는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고전소설에서는 ‘본시 천상계에서 살던 인물이 어떤 실수나 죄를 저지름으로써 지상계로 쫓겨 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즉 상제를 모시고 있던 선관 선녀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유배 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적강인 것이다. 여기서 천상계는 옥황상제에 의해 다스려지며 움직이는 절대공간을 지칭하며 상제를 보위하는 선관 선녀들은 상제가 규정해놓은 천상의 법규를 따른다. 그리고 죄를 범할 시에는 지상으로 쫓겨나 정해진 기간 동안 속죄해야만 천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때 선관 선녀가 지은 죄로 나타나는 것은 대개 남녀 희롱, 신물 사취, 직무 태만, 남의 죄 변론 등으로 다양하며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다. 다시 말해 천상계에서 죄로 인한 벌로 지상계로 쫓겨나는 것이 적강이며 천상계로 복귀하기까지 일정기간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적강은 현실에서의 고난을 담보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적강형 소설은 천상계의 존재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와 정해진 기간 동안 죄과를 치룬 뒤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내용을 다룬 소설을 뜻한다. 즉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순환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한다. 본고에서 살펴 볼 〈숙향전〉도 적강구조를 충실히 따르는 전형적인 적강형소설에 해당한다.

특히 〈숙향전〉은 주인공 숙향과 이선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대다수가 천

35) 성현경, 앞의 책, 3쪽.

상에서 적당하고 이를 중심으로 천상계가 적극적이며 치밀하게 개입하여 서사를 진행시키기에 적당구조가 더욱 더 치밀하게 전개된다. 본고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이 지점인, 죄와 벌이라는 적당의 틀이 〈숙향전〉 서사 전반에 걸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 대다수에게 온전히 유지된다는 점이었다.

고전소설 중 적당형 소설에는 적당요소가 강하게 제시되는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당의 목표에 따라 작품에서의 기능과 의미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적당을 목적으로 한 〈숙향전〉 같은 작품은 〈숙향전〉 서사 전체에 걸쳐 적당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적당을 애정성취나 영웅성 강화로 사용한 작품에서는 적당이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

성현경은 천상계가 상제를 중심으로 엄격한 법제에 의해 움직이는 점을 들어 조선사회와 천상계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군주를 정점으로 하여 三相六卿들이 통치하는 당대사회와 옥황상제를 정점으로 부처, 보살, 태을성이 다스리는 천상계를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조선사회도 천상계처럼 엄격한 규제와 금제를 설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기를 요구하기에 이 두 세계는 윤리면이나 제도면에서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즉 당대인들에게 적당화소가 환영 받은 이유는 중세적 질서의 위기를 절감한 당대인들이 당대의 상황, 제도의 모순 등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도 적당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본 것이다.³⁶⁾

적당은 또한 천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상의 삶에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 볼 수 있다. 천상의 일이 원인이 되어 지상의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인데 때론 맺힌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될 때도 있다. 적당은 이처럼 서사를 인과관계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서술하기에 좋은 소재이기도하다. 특히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대다수 영웅적 인물이기에 천상에서 적당한 인물이야말로 주인공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적

36) 성현경, 앞의 책, 31쪽.

강한 인물은 범인이 아닌 천상계의 특별한 존재이기에 주인공의 탁월한 능력이나 비범성을 획득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적강은 주인공들의 천상계에서의 인연을 지상에까지 연결시켜 천정연분으로 묶을 수 있기에 남녀 애정실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적강은 주인공의 능력획득, 남녀애정성취 등 작품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화소였다. 그리고 적강의 세계관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넘나드는 이원적인 세계관으로 천상계의 개입이 자유롭기에 서사는 환상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선학들의 연구를 토대로 나름대로 적강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천상과 지상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둘째, 천상의 죄가 지상의 벌로 연결되어 사건이 진행되기에 유기적 인과 관계를 갖는다.

셋째,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와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순환구조를 지닌다.

넷째, 천상계와 지상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넘나들기에 초월적이며 환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적강의 특징들이 적강형소설에 모두 등장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했느냐에 따라 애정담·군담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장되고 적강담에서는 거의 대부분 적용되기도 한다.

적강은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전반에서 활용된 문학적 관습이기도 하였다. 건국신화에서는 군사귀족이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치자로서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천손임을 강조했고 서사무가에서는 천상을 설정하고 주인공의 왕래를 그려 신성성을 부각하였다. 불교에서는 다양한 세계를

윤희 · 전생하는 이야기가 일반화되어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강림이 다수 확인된다.³⁷⁾ 이러한 적강형소설들은 소설유형의 하위갈래에 따라 유독 적강담이 강화되거나, 군담 혹은 애정담이 수용되면서 선별적으로 강화되면서 적강의 폭이 다양화 되었다.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적강형 소설의 구현양상

앞서 밝혔듯이 적강형 소설은 적강화소를 수용하되 전반적으로 서사 전개 중심에서 어떤 점을 더 부각했느냐에 따라 적강담, 애정담, 군담으로 세분할 수 있다. 즉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진행되는 적강의 순환체계가 잘 구현되는 것은 전형적인 적강담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보다 애정성취를 좀 더 강조한 것은 애정담으로, 영웅성 획득과 과업성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군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특징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특성들을 공유하며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에서는 편의상 보다 많은 비중을 반영하고 있는 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을 각각의 대상작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적강담 강화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숙향전〉은 서사가 영웅일대기 구조와 상통하는 점을 들어 조동일은 영웅소설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³⁸⁾ 〈숙향전〉

37) 김진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적강화소의 기원 탐색」,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89쪽.

3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528쪽.)은 연구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숙향전〉을 여성의 수난을 다룬 영웅소설의 구성에다 넣어서 다루었다. 숙향이 영웅의 능력은 제거되었지만 〈숙향전〉의 서사구

에는 영웅소설에 필수적으로 삽입된 군담은 보이지 않는다. 서사는 그보다 천상의 선관 · 선녀였던 남녀주인공이 적강 후 지상에서 죄와 형벌을 어떻게 치러내는지 그 고난과 시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내는지에 집중한다. 〈숙향전〉에서는 죄와 형벌의 모습도 상당히 구체화 되어있으며 인물들과 사건도 철저하게 인과관계에 의해 입증된다. 또한 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상계가 개입하여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등장인물들도 천상인과 지상인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두 세계의 넘나듦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적강의 논리와 구조가 명확하게 전개되는 작품이 〈숙향전〉이다.³⁹⁾

판소리계 소설인 경판본 〈심청전〉도 〈숙향전〉처럼 적강의 논리가 충실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적강담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서사가 적강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판본 〈심청전〉의 심청과 심현은 모두 전생에선 천상계의 선관 · 선녀였으며 이들의 현재 지상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천상계와 연관되어 있다. 심청과 심현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이며, 자신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일정기간 지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경판 〈심청전〉의 서사는 주인공 심청과 아버지 심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이때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천상계와 철저한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하기에 경판본 〈심청전〉은 적강이 중심이 되어 서사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다.⁴⁰⁾

조가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숙향전〉을 영웅소설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숙향전〉에는 영웅소설에 필수적으로 삽입된 군담도 보이지 않으며 주인공 숙향의 일생이 영웅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모습은 소거된 채 수동적인 점으로만 일관하는 것을 볼 때 숙향을 영웅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39) 〈숙향전〉에 대해선 3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에 본장에서는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40) 경판 〈심청전〉을 완판 〈심청전〉과 심청가, 심청무가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조적 인물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으면서 전체 서사가 심현과 심청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심현과 심청의 전생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그들이 이승에서 겪는 고통을 합리화시켜 준다. 이러한 경판 〈심청전〉은 심현과 심청을 중심으로 한 적강구조의 틀 안에서 서사가 이루어지고 경

ㄱ) 룡왕이 흙신 왈 규성이 인간 즈미 엇더 흐더노 청이 다시 공경 비복 왈 소첩은 인간 천인이라 디왕의 하교흐시를 씨닷지 못흐리로소이다 룡왕이 미소 왈 너는 전싱 조간왕의 귀녀로서 요지 왕모연의 술를 가음알게 흐엇더니 네 노군성과 스정이 이셔 술를 만히 먹이고 잔치의 술이 부족흐미 도술턴이 옥데기 청죄흐디 옥데 진노흐스 곱아스디 이는 턴존의 죄 아니라 술 가음으는 시녀의 죄니 즈셔히 스실흐여 둥죄를 듀라 흐시미 노군성을 인간의 너쳐 스십년을 무폐히 지너다가 널노 더부러 부네 되어 네 성효를 닛트너라 흐시미 노군성은 심현이 되어 인간의 적강흐 지 스십년만의 널노쳐 그 쫘이 되어 턴상의셔 술도적흐여 먹은 죄로 식선을 접지치 아니흐여 십삼년을 빌어먹게 흐고 쫘 눈을 멀게 흐며 규성의 빌어먹이는 거슬 보다 턴상과보를 맞게 정흐여 계시니...41)

ㄴ) 가히 뉴리국 왕휘 되어 평싱 왕낙을 누리게 접지흐나이다 흐거늘 옥데 허흐시고 북두성이 쫘 듀왈 남두성이 규성을 극진히 접지흐여스니 신은 노군성으로 공휘되여두며 낙하성을 맞노 남너를 싱흐여 부귀 복록이 일세의 웃듬이 되게 흐고 슈는 칠십오세의 도로 넷 벵슬노 도라오게 흐고 규성은 삼즈 이너를 두고 칠십삼세의 도로 동희로 도라오게 접지흐는다. 42)

위의 인용문은 룡왕이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인당수에 빠진 심청에게 전생에 대해 알려주는 장면이다. ㄱ)은 심청과 심현이 천상계에서의 전생신분, 천상계에서 지은 죄, 그로 인해 받아야 하는 형벌에 대한 것이고 ㄴ)은 시련이 끝난 후 받게 될 지상 복록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심청은 천상계에서 초간왕의 딸 규성으로 서왕모 잔치에 술을 관리하는 존재였으며 노군성과는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심청이 노군성에게 사사로운

관 <심청전> 이 지닌 서사적 특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김나영, 「장르별 심청이야기가 지니는 의미 지향」, 『관소리학회지』 19집, 관소리학회, 2005. 218쪽.)

41) 경판24장 본 <심청전>, 70쪽.

42) 경판24장 본 <심청전>, 70쪽.

정으로 술을 나눠줘 잔치에 술을 부족하게 만든다. 이 같은 잘못으로 심청은 적당하게 되고 심현도 술을 얻어먹은 죄로 적당을 한다. 결국 심현의 안명과 심청의 지상에서의 고난이 전생 죄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대목이다. 여기서 심청과 심현이 적당하게 된 죄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매우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규성과 노군성을 지상에선 부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만들어 노군성에겐 술 도적질하여 먹은 죄로 먹을 복을 점지하지 않았으며 규성에게는 그런 아버지를 13년 동안 봉양하게 하는 게 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심청의 지극한 효성으로 심청과 심현이 예정된 죄과를 끝내고 받게 될 지상 복록에 대한 점지도 매우 구체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천상계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지상계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로 볼 때 심청과 심현의 삶은 천상에서 입은 업이 지상에서 합리적인 질서에 의해 반영되는 필연의 연속선상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연속의 고리 속에는 줄곧 부모와 자녀간의 효가 강조되면서 비장적 미학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³⁾

특히 심청과 심현이 천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지상에서 부녀사이가 된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그들의 천상계의 삶이 지상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을 지상계의 인간관계를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숙향전〉의 숙향과 김전부부가 천상에서의 죄 때문에 지상에서 부모자식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경관본 〈심청전〉도 이처럼 철저한 인과관계 속에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적당담이 그만큼 철저하게 구현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심치열, 앞의 논문, 106쪽.

2) 애정담 강화

천상계의 선관·선녀가 지상으로 적강하는 주 죄목은 대개 남녀 희롱죄다. 선관·선녀는 상제 몰래 애정을 나누다 발각되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전생인연은 이들을 지상에서 천정연분으로 묶는 좋은 구실이 된다. 적강이라는 요소가 남녀애정성취를 위해 적극 사용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가 <숙영낭자전>이다. <숙영낭자전>의 주인공 숙영과 선군도 천상계의 선관·선녀로 희롱죄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른 적강소설과 같은 점이다. 그러나 천상계와 지상계의 밀접한 인과관계에 의해 진행되는 <숙향전>과 경관본 <심청전>과 달리 <숙영낭자전>에는 천상계의 개입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천상계와 지상계의 연관관계도 미약하게 나타난다. 단지 적강은 숙영과 선군의 애정에 적극적으로 초점이 맞춰 진행될 뿐이다.

<숙영낭자전>은 <숙향전>과 서사가 상당히 유사한 작품이다. 유사한 점은 남녀 주인공이 모두 천상계에서 애정문제로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로 천정연분을 중요시한다는 점, 지상에서의 첫 만남이 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부모의 허락 없이 결연을 이루며 이들 결연을 방해하는 인물이 시아버지라는 점 등이다. 하지만 <숙영낭자전>과 <숙향전>의 차이점도 크다. 적강의 형태도 다르며 죄와 형벌의 방식·시련·조력자의 도움 및 천상복귀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적강에 대한 주인공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⁴⁴⁾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에서 주인공들이 적강에 대처하는 방식이 특이점이

44) <숙향전>의 숙향과 이선은 적강을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며 이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것에 비해 <숙영낭자전>의 숙영낭자와 선군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기에 <숙향전>의 숙향과 이선이 적강에 임하는 태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라 할 수 있다. 〈숙향전〉의 숙향과 이선이 자신에게 정해진 죄과를 감내하고 속죄의 길을 걷는다면 숙영과 선군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한다. 숙영과 선군의 천상 죄에 대한 형벌은 숙영은 옥연동에서 정해진 기간의 자숙이고 선군도 숙영과 천정연분을 맺기까지 삼년이란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천상계가 정해놓은 법칙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를 파기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솔직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ㄱ) 낭군이 첩을 모로시고 타문의 구혼을 하시온이, 천싱연분으로 요지현의 가서 낭군으로 더부러 희롱흔 궤로 승계계옵서 인간의 너치시뵈, 인간의셔 인연을 금세에 결친하라 하였던이, 웃지 타문의 구혼을 하려 하시느릿가? 낭군은 삼연만 위흔하고 첩을 기다리옵쇼셔.⁴⁵⁾

ㄴ) 일일여삼취라. 습연니 몇 습취란 하나니가 낭자 만일 그져 도러가라 하시면 선군니 목슴니 비조직석니라. 너 목슴미 황천의 외로운 혼빅니 되오면, 낭즈의 신명닌들 온전하올니가 복망낭즈는 잠간 몸을 허신하옵시면 선군의 목슴을 보전 하올니다 낭즈는 송빅 갖튼 정절을 잠간 구뵈을 바라고, 쏘흔 낙시의 물닌 고기를 구하여 주옵쇼셔. 하며 스싱 결단하니, 낭즈 형세 문부티순지승니라. 빅니스 지하야도 무가너히라. 니적의 월광은 만천하고 야식은 습경니라. 선군니 침금 나가니 낭즈 할 길 읍서 몸을 허락하닌지라.⁴⁶⁾

ㄱ)은 숙영이 선군이 다른 곳으로 혼처를 구하자 자신들의 천정연분이 깨어질까봐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천정 인연을 알려주는 장면이며, ㄴ)은 이를 알게 된 선군이 옥연동으로 숙영을 찾아가 결연을 하는 장면이다. 선군은 숙영을 꿈속에서 만나 천정연분임을 알게 된 후 숙영과 연분을

45) 〈숙영낭자전〉, 223~224쪽.

46) 〈숙영낭자전〉, 236~237쪽.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선군은 애정성취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장애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돌적이다. 천상죄를 갚기 위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더 남아있지만 선군은 옥연동으로 숙영을 찾아가 결연하기에 이른다.

숙영도 자신의 애정성취를 위해서는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숙영은 삼년을 더 기다려야만 자신들의 죄업이 끝난다는 걸 선군에게 알려줄 정도로 자신들의 죄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숙영은 옥연동으로 찾아온 선군과 연분을 맺는다. 그리고 선군과의 연분 맺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군의 부친에게 당하는 모진 시련 앞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굴함이 없는 행동을 보인다.

〈숙영낭자전〉에선 숙영이 시련을 당할 때 도와주는 천상계의 존재는 없다. 숙영을 모해하는 시비 매월도 선군이 단죄한다. 이렇게 천상계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천상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적강요소가 작품에서 약화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남녀 주인공의 천상복귀가 시련을 극복한 뒤 지상의 복록을 누리지 않고 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 대목이다. 천상복귀는 아이들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점도 적강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숙영낭자전〉이 이처럼 〈숙향전〉보다 적강모티프가 약화된 모습이 보이는 이유를 안동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애정 인식이 천상의 차원에서 지상의 차원으로 바뀌어가자 적강형 애정소설에 나타난 남녀관계가 새롭게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⁴⁷⁾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숙영낭자전〉에 구현된 적강은 남녀주인공의 애정을 강화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7) 안동준, 위의 논문 43쪽.

서사가 애정으로만 구성된 〈숙영낭자전〉에 비해 〈백학선전〉은 전반부는 애정담 후반부는 군담이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서사에 군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서사의 주지를 이루는 내용은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이들의 혼사장애라 볼 수 있다.

〈백학선전〉에서 남자주인공 유백노가 자신의 천정배필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⁴⁸⁾은 〈숙향전〉의 이선이 숙향과 만나기 위해 숙향의 여정을 답사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유백노가 하는 모든 행위, 즉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얻는 것, 전쟁에 참가하는 것 등이 모두 오직 천정배필을 만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유백노는 집요할 정도로 자신의 천정배필인 조은하를 찾아가고 이 점에선 여자주인공 조은하도 마찬가지다. 우연히 길에서 유백노를 만나 백학선이란 신물을 주고받은 이후 천정연분으로 여기고서 유백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백학선전〉은 이러한 점 때문에 군담보다는 애정담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백노와 조은하의 이러한 천정배필 찾기는 〈백학선전〉이 천상계의 개입으로 진행되는 작품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백학선전〉의 천상계의 개입은 〈숙향전〉처럼 주인공 탄생과 시련극복·능력획득·천정복귀 등 서사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숙향전〉처럼 천상계의 개입이 철저한 인과관계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기) 소즈는 상제 동즈러니 죄를 어더 갈 바를 몰나 즈져헝다가 복두칠성이 인도 하기로 왔스오니 부인은 어엿비 녀기소서 헝고 부인의 품으로 들거늘 부인이 더 회헝여 상설르 보고져 헝다가 문득 씨다르니 남가일몽이라. ⁴⁹⁾

48) 이에 대해 김기동도 〈백학선전〉이 군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유백노가 국가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 전쟁에 출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정배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백학선전〉을 애정담에 포함시켰다. (김기동, 앞의 책, 463쪽.)

49) 〈백학선전〉, 515~516쪽.

ㄴ) 우리는 상제 시네러니 칠월칠석의 은하수 오작교를 그훗 노흔 죄로 인간의
넉치시미 일월성신이 우리로 지시호여 이르러스니 부인은 어엿비 여기소서 이
낭주의 브필은 남경짜 뉴시오니 천정비우를 일치 말나 호고 말를 맞치며 낭직
방중으로 드리가거늘 부인이 감격호여 방중을 쇠소코져 호다가 문득 썩다르니
침상일몽이라. 50)

적장의 논리가 치밀하게 구현되는 작품은 천상의 죄명도 구체적으로 제
시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경판본 〈심청전〉에서도 심청과 심현이
죄를 짓게 되는 동기와 죄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거기에 비교하면
〈백학선전〉은 남녀주인공의 죄는 동기와 죄명만이 간략하게 나타난다. ㄱ)
은 남자 주인공 유백노의 태몽 대목이며 ㄴ)는 여주인공 조은하의 태몽 대
목으로 인용문에는 이들의 죄가 제시되는데 유백노의 죄명은 구체적이지 않
고 조은하만 오작교 잘못 놓은 죄라는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의 첫 만남이 우연히 길에서 이루어지며 여주인공 조은하의 능력 획득
하는 장면도 개연성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적장의 논리가 치밀하게 구현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학선전〉은 경판본 〈심청전〉이나
〈숙향전〉처럼 지상에서의 사건이 천상계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진행되는
않는다. 이는 적장이 애정성취와 군담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군담강화

천상존재가 죄를 짓고 내려와 천정 원리에 따라 지상에서 과업 성취 후
천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영웅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며 이때

50) 〈백학선전〉, 517쪽.

적강은 주인공의 영웅성을 형상화하기에도 적합한 요소다. 적강하여 내려오는 인물들은 천상계의 선관·선녀이기에 그들의 능력은 비범하며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들이기에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내야 하는 군담에서 이들의 능력은 요긴하게 사용되고 그러므로 적강은 군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소리 할 수 있다. 적강이 애정담에서 남녀애정을 위한 용도로 적절하게 이용되었듯이 군담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적강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서사를 관통하는 적강요소는 <숙향전> 보다 군담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약화하여 나타난다.

<유문성전>, <김희경전>은 적강형 애정소설에 해당하는 작품⁵¹⁾이지만 이들 작품엔 모두 군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두 작품 모두 서사의 전반부는 결연에 관한 애정담이며 후반부는 이들이 전쟁터에서 펼치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담긴 군담이 주를 이룬다.

<유문성전>도 <백학선전>처럼 애정과 군담이 고르게 들어가 있는 작품⁵²⁾이라 할 수 있다. <유문성전>의 남녀주인공도 모두 천상의 선관·선녀로 천상에서 적강한 인물들이며 그들에게 부여된 형벌을 치른 뒤 천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숙향전>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형벌을 치러내는 방식에선 <유문성전>은 차이점을 드러낸다. 죄에 대한 형벌, 즉 이들이 당하는 시련이 천상죄로 인해 발생한 형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천상에서의 득

51) 안동준(위의 논문, 1쪽.)은 천상에서 적강한 남녀 두 주인공이 한결같이 애정문제로 시련을 겪는다는 점에서 한 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문성전>, <김희경전>도 적강형 애정소설로 분류하였다. 본고도 이에 동의하지만 <유문성전>과 <김희경전>에는 애정담 못지않게 군담적 요소도 강하게 보인다는 점을 들어 본장에서는 군담으로 분류하여 그 구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2) <유문성전>처럼 애정과 군담을 결합하여 새롭게 영웅소설로 축조된 작품들은 애정이 성취된 부분을 기점으로 주인공의 모습이 일신한다고 하였다. (박대복·이명현의 「<유문성전>에 나타난 갈등과 해결방식」, 『인문학연구』 33, 인문과학연구, 2002.)

죄 때문에 그 별로 지상에서의 시련을 겪어내는 〈숙향전〉과는 다른 부분이다.

일일은 상서일몽을 어드니 하늘로셔 혼 선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외여왈 그
디 즈식이 업셔 밋일 혼탄헝기로 일기 옥녀를 점지헝나니 남자 안임을 한치 말
고 귀히 기르소서. 53)

위의 인용문은 〈유문성전〉의 여주인공 이소저의 태몽이다. 〈유문성전〉엔 주인공의 태몽에서부터 적강이 다르게 나타난다. 태몽 중 남자주인공 유문성의 태몽은 없고 여자주인공 이소저의 태몽만 나타나고 출산보조도 없다. 태몽은 주인공의 삶의 궤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화소다. 적강은 태몽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주인공의 출생부터 천상의 논리가 지상에 개입하는 개연성을 갖는 구실을 한다.⁵⁴⁾ 이렇게 태몽으로부터 시작된 적강화소는 이후 순차적으로 주인공의 탄생·만남·시련·천상복귀 장면으로 고르게 진행되며 구현된다. 그런데 〈유문성전〉에는 태몽에서부터 적강이 다르게 나타난다. 〈숙향전〉의 태몽은 숙향과 이선의 태몽이 모두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유문성전〉과 〈숙영낭자전〉은 주인공 중 한 사람의 태몽만 있었고 그 중 〈숙영낭자전〉은 숙영이 선녀의 몸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특이점이 보였다. 이는 태몽에서부터 적강이 변모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천상의 논리가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숙향전〉의 태몽은 적강요소가 강하게 나타지만 〈유문성전〉과 〈숙영낭자전〉은 천상논리가 약화되었기에 태몽도 불균형하게 어느 한 사람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3) 〈유문성전〉, 291쪽.

54)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박사논문, 2005, 113쪽.

나는 이르기를 일광도스라 흐거니와 그티는 당초에 텃상 문성이요 낭자는 월궁 황아의 총녀라 강명이 상계의 명을 맞아 월궁 도애초로 갖슬 썩에 서로 눈 주어 희롱흔 죄로 인간에 적강하야 초분고생을 지닌 후 중분버딤 비로서 익을 먼흐고 조흔운수가 도라오게 말연흐얏스니 상젯기 빌어 연분을 미전후에 후사를 인도하리라. 55)

위의 인용문은 유문성과 이소저의 적강죄목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적강죄목은 대개 주인공의 태몽 시에 알려지는데 <유문성전>에선 서사의 중반부를 지나 남녀 주인공이 결연을 이룬 후 일광도사를 통해 알려진다.

또한 후반부 군담에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인 주원장이 등장하여 나라를 건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역사적 사실을 강화시킴으로써 적강의 의미가 변모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문성전>은 <숙향전>과 마찬가지로 적강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지만 적강의 논리가 치밀하게 구조화된 <숙향전>에 비해 <유문성전>이 적강의 논리가 구조적이라기보다 상징적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즉 <유문성전>엔 적강이 여주인공의 정절 강조와 남녀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재료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희경전>은 앞서 살펴본 <백학선전>, <유문성전>처럼 전반부 애정담과 후반부 군담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영웅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는 작품이다. <김희경전>엔 적강요소가 서사 전반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김희경전>의 등장인물들의 적강형태는 <숙향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숙향전>의 등장인물 대부분이 천상죄로 인해 적강하였듯이 <김희경전>의 등장인물도 남녀주인공과 세 명의 여인이 모두 적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향전>이 천상과 지상의 치밀한 인과관계에 의해 등장

55) <유문성전>, 321쪽.

인물들의 관계망이 연결된다면 <김희경전>의 인물들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연결고리는 극히 미약하다. 지상으로 적강한 김희경과 네 명의 여인들은 모두 김희경과 결연을 맺는 이들이다. <김희경전>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사의 중반부터 드러나는 결연담인데 <김희경전>에는 남자주인공 김희경이 여주인공 장설빙과 맺는 결연과정 외에도 세 번의 결연과정이 연속적으로 추가된다. <숙향전>에서도 이선은 숙향 외에 매향과도 결연을 하지만 이는 천정연분에 의한 결연이다. 그런데 <김희경전>은 이들의 결연이 천정연분에 의한 것임을 서사에서 언급하지만 <숙향전>만큼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선관이 미소왈 삼청에서 그딤 네 선녀를 눈 준 죄로 진세에 적강호앗더니 옥황상췌게옵서 감동호스 죄를 특사호시와 날노호야금 그딤와 네부인을 다레오라 호시기로 왓스오니 지체말고 발정호야 가사이다.⁵⁶⁾

위의 인용문은 천상복귀 시 김희경과 네 명의 여인의 죄명에 대해 알려주는 대목이다. 김희경과 네 명의 결연이 천상에서의 인연 때문이라는 것을 서사 말미에서야 간략하게 제시해준다. 이렇게 볼 때 <김희경전>에서 추가된 세 번의 결연담은 남녀의 애정성취나 천상계의 인연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남주인공 김희경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이야기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세 번의 결연담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희경전>에서는 여주인공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서사의 후반부에 여주인공 설빙이 남장으로 위장한 후 전투에 참가해 세우는 공은 남주인공 김희경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영웅의 활약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 때문에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이기도 하다.⁵⁷⁾ 이

56) <김희경전>, 303쪽.

57)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08.

렇게 볼 때 <김희경전>도 <백학선전>, <유문성전>과 마찬가지로 적강요소가 주인공들의 영웅성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적강담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들인 <숙향전>, 경판본 <심청전>, <숙영낭자전>, <백학선전>, <유문성전>, <김희경전>을 대상으로 적강의 구조적,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적강담, 애정담, 군담으로 구분하여 각 작품을 분류하고 서사적 맥락을 짚어보았다. 적강이 <숙향전>과 경판본 <심청전>에서는 적강논리가 인과적으로 치밀하게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작품들은 애정성취와 영웅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적강이 현저하게 약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볼 때 대부분의 적강형 소설에서 적강이란 필연적으로 죄와 형벌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 <숙향전>은 적강담 강화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모든 인물들의 죄와 벌이 천상과 지상으로 연결되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즉 <숙향전>은 적강의 정형적인 구조인 순환체계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남녀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대부분이 이러한 적강의 구조를 반영함이 타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숙향전>은 앞서 적강의 특징으로 제시한 네 가지 특징에 모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와 벌을 받은 뒤 다시 복귀하는 적강의 순환적 구조의 틀을 갖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특히 <숙향전>의 적강은 기존논의에서도 중심축으로 연구되었지만, 죄와 벌의 치밀한 구조까지 연구의 폭이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숙향전>의 적강을 죄와 벌의 관계망 속에서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Ⅲ. 죄와 벌의 관계에서 본 등장인물의 서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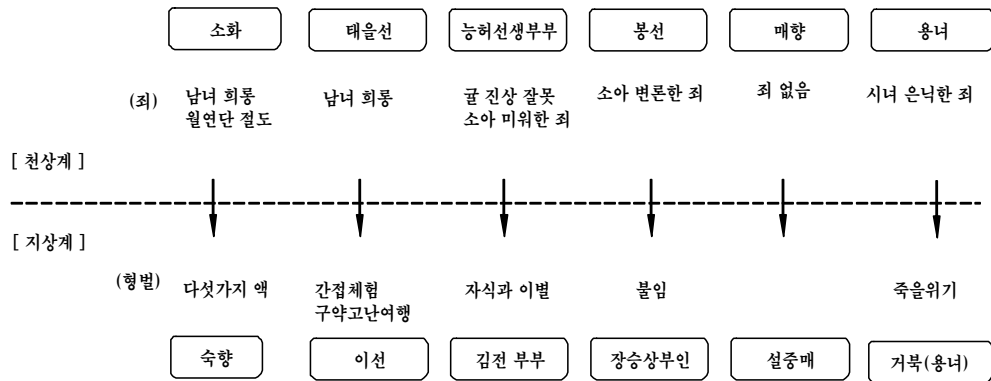
〈숙향전〉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서사를 이끌어 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까지 대개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당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여타의 적강형소설에서는 집중적으로 주인공만 적강하지만 〈숙향전〉은 주인공과 등장인물 대부분 적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더군다나 등장인물 간 죄의 동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죄의 해결과정과 결과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 〈숙향전〉은 천상의 선관·선녀였던 남녀주인공과 그 주변인물들이 적강 후 지상에서 죄와 형벌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천상에서의 원초적 죄가 지상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 소거되는 과정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숙향전〉은 타 소설에 비해 이러한 구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면서 작품의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숙향전〉의 등장인물은 천상계와 지상계 두 세계에 공존하는 인물로 이를 더 세분하면 순수하게 천상계에 속해있는 인물, 순수하게 지상계에 속해있는 인물,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 모두 공유하는 인물인 적당한 인물로 나누어진다. 먼저 순수한 천상의 인물은 상제, 용왕, 향아, 마고할미, 화덕진군, 후토부인, 선녀들이며 지상계의 인물은 도적, 사향, 이상서, 왕씨 부인, 이선의 고모, 조장이고 적당한 인물은 숙향, 이선, 김전부부, 장승상부인이다. 고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인물 설정 자체가 천상적 인물과 지상적 인물로 등장시키는 관습이 있는데, 편의상 〈숙향전〉의 인물 또한 순수한 천상인, 적

강한 천상인, 순수한 지상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⁸⁾

〈숙향전〉에서 특히 적강한 인물들인 숙향, 이선, 김전부부와 장승상 부인, 용녀의 관계가 한 세계에서 국한되거나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천상과 지상을 잇는 순환적이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작품에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보조적 · 주변적 인물 대부분이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강한 인물들이라는 점과 이들이 겪은 죄 역시 죄 대부분이 숙향과 인과관계망 속에 재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선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8) 심치열, 앞의 논문, 249쪽.

순수한 천상인	적강한 천상인		순수한 지상인
용왕, 용자, 후토부인, 화덕진군, 대성사부처, 이적선, 여동빈, 두목지, 청의동자, 구류선	태을 월궁소아 설중매 마고선녀 규성 능허선부부	이선 숙향 매향 마고할미 장승상부인 김전부부	도둑 사향 조적 이선의 고모

본고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되 마고할미는 순수한 천상인에 포함시키고 매향은 지상으로 내려온 천상인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등장인물별 죄와 벌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때 천상계는 득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지상계는 속죄를 풀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함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인물이 아니기에 따로 설정해야 하지만 등장인물들(숙향, 이선, 김전부부)간에 일정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에 함께 묶어 설명하기로 한다. 용녀는 천상에서 1차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숙향, 이선, 김전부부, 장승상부인, 설중매와는 달리 숙향과는 아버지 김전에 의해 연결되는 2차적인 관계이지만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다는 점에선 같기에 함께 묶어 보기로 한다. 또한 용녀가 죄를 짓는 공간은 수궁계이지만 천상계와 같은 초월적인 공간이기에 공간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를 토대로 각 인물별로 이들의 죄와 형벌, 속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해결되며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텍스트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의 관계망을 살펴보기 위해 숙향의 적장에서부터 지상 여정기에 따른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가해자로서 고난극복, 숙향

적강형 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천상계의 인물로 상제에게 죄를 지은 뒤 지상에 내려오는 존재들이며 <숙향전>의 남녀주인공 숙향과 이선도 마찬가지이다. 천상에서 선관·선녀였던 숙향과 이선도 상제에게 죄를 짓고 적강한다. 본 장에서 살펴볼 숙향은 천상에서 월궁항아의 시녀로 항아에게 사랑받던 선녀였다. 항아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향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태

을선이라는 선군을 연모하게 되면서 부터이며 특히 숙향의 죄는 천상에서 적장하는 이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데 주목을 요한다.

(ㄱ) 선녀 쇼왈, “부인니 인간의 날려와 더러운 너와 더러운 물들 자시니, 우리를 몰나보시는 쏘다”호고 이슬 갖튼 츠를 드리니, 그제야 월궁선녀로 상제 압해서 틱을선군과 글 지어 화답호고 월연단 도적호여 주고, 인간의 귀향 온 일들 역역히 알며, 그 아희들은 월궁의 잇실 제 시네 줄 알고, 붓쓸고 통곡하며 반가운 마음을 측양치 못호야… (정문연A본, 35면.)

(ㄴ) 부인이 갈오되 선녀 월궁의 계실 제 횡아게 득죄호야 고흡를 격게 호와시며, 그석에 봉선이란 선녀 옥제게 알외고 그딕를 구호다가 쏘한 득쾌호여 남군 썩 장승상의 부인니 되게 호여시니, 장승상 집니 가 먼저 전싱 은혜 후의 틱을선군을 만나 영화를 보고 부모를 만나 뵈올 거시오니… (정문연A본, 16면.)

(ㄱ)은 장승상 댁에서 모함으로 쫓겨난 숙향이 포진강에 빠진 후 선녀를 만나 자신의 구체적인 죄가 태을선과 글 지어 화답한(희롱한) 것과 월연단을 도적질 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장면이다. 숙향은 개인의 욕망이 용납되지 않는 천상계에서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희롱죄와 도적질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러 천상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더군다나 숙향이 희롱한 태을선은 아내가 있는 남자였다. 지상에서 양왕의 딸로 태어난 설중매가 태을선의 천상계 아내였는데 숙향은 태을선을 연모하므로 그 아내인 설중매(매향)와 설중매의 부모인 능허선생부부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향의 죄는 월연단이라는 신물을 사취하고, 아내가 있는 가정을 깨트렸을 뿐 아니라, 능허선생 가정까지 풍비박산 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ㄴ)은 숙향이 명사계에 갔을 때 후토부인을 통해 자신이 부모를 난리통에 잃고 고초를 당하는 것이 천상에서 지은 죄 뿐만 아니라 장승상부인도 자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다. 즉 숙향은 천상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이선, 능허선생부부 뿐만 아니라 장승상부인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제공자, 가해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향은 천상에서 두 가지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까지 죄를 짓게 만든 원인제공자였기에 그에 대한 형벌은 무려 다섯 가지나 해당된다. 숙향이 천상에서 지은 죄가 이처럼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은 다섯 살 어린나이부터 시작해 10년이란 세월동안 감당해야 할 다섯 가지 액으로 가혹할 수밖에 없다.

〈숙향전〉의 서사는 숙향과 이선의 형벌과 속죄의 여정이라 칭할 수 있다. 이들이 천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지상에서 긴 시간동안 치러지기 때문이다. 숙향과 이선이 적당한 뒤 지상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형벌, 그리고 속죄의 과정들이 이들의 여정을 통해 세밀하게 진행된다. 숙향과 이선의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숙향이 집을 떠나 이화정에 거처하게 될 때까지가 1차 여정, 이선과 결연 후 부모를 만나기까지가 2차 여정, 이선의 구약여행이 3차 여정에 해당된다. 여기서 1차 여정이 숙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2차여정은 숙향과 이선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여정, 3차는 이선 중심의 여정이다. 숙향은 1·2차 여정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룬 뒤 속죄의 길을 다녀오며 이선은 2차와 3차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루고 속죄의 길을 다녀오게 된다. 본장에선 숙향의 형벌의 여정에 해당되는 1차 여정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숙향이 1차 여정은 다섯 가지 형벌을 치러내야 하는 여정이다. 다섯 가지 형벌은 ① 반야산 도적의 칼에 죽을 위기에 처하는 벌 ② 명사계에 들어가는 벌 ③ 포진강 투신 ④ 갈대밭 화재 ⑤ 낙양옥중에서의 위기가 그것이

다. 이 다섯 가지 형벌은 숙향이 다섯 살부터 시작되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 다섯 가지 형벌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 순차적으로 숙향의 탄생과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전부부의 기자치성에 의해 만득자로 태어나는 숙향은 출생부터 비범한 탄생을 보인다. 이런 신이한 출생은 적강(형)소설의 주인공들의 탄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주인공의 출생부터 천상의 논리가 지상에 개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ㄱ) 김전부처 완월누의 올라 월식을 완경허더니 문득 공중으로서 빅화 한 가지 장씨 압해 날너지거늘 놀나 보니 이화도 안니요 미화도 안니로되 말근 향너 진동허거늘 고니히 녀여쓰니 홀연 광풍이 일어나며 그 쫓치 산산이 허여지거늘 장씨 차탄허여쓰니 위연 그날 밤의 한 몽샤를 어드니 금뚝겹니 품 샤이에 드러 뵈거늘 놀나 썩여 김전의게 꿈 말삼를 베푸니 답왈 어제 계화 압해 썩러지고 오늘 금뚝겹비 품에 드러뵈니 반드시 귀자를 보리라 하고... (정문연A본, 4~5면.)

(ㄴ) 일일은 일귀 순화흔디 홀연 오식 구름니 집을 둘러 싸고 네 업슨 향너 집안에 진동허거늘 가중 상히 귀니히 녀엿드니 일모흔 후의 문득 공중으로서 선네 두리 날여와 등화를 혀고 김전다려 왈 니제 월궁향애 오시니 그디는 집안의 더러운 거슬 업시 허라 허고 장씨 방으로 드러가거늘... 장씨 빅야호로 아희를 낫커늘 그 선네 두리 아기를 향슈의 썩겨 누이고 밧비 나가거늘 김전니 종적을 알여 허니 밧셔 간디 업는지라. (정문연A본, 5면.)

(ㄱ)은 김전부부의 기자치성에 의해 장씨 부인이 태몽을 꾸게 되는 장면이며 (ㄴ)은 숙향 출생 시 출산을 도우러 온 선녀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는 이선의 출생과정과도 유사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선의 출생과정에서도 태몽과 선녀들의 출산보조가 등장하고 천정배필도 구체적으로 세밀하

게 알려주는 대목⁵⁹⁾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녀주인공의 태몽과 출산 보조, 천정배필을 암시하는 대목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적강(형)소설은 〈백학선전〉 뿐이고 〈유문성전〉은 여주인공의 태몽만 있고 출산보조는 없으며 〈숙영낭자전〉도 선군의 태몽만 있고 숙영은 아예 선녀의 몸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는 〈숙향전〉이 그만큼 주인공의 신이한 출생에서부터 천상개입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형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반야산에서 도적에게 화를 당하는 형벌이다.

숙향니 점점 자라 삼세 되니 괴골이 일월갓고 자식니 황홀하여 샴람니 바로 보지 못하고 음성니 옥저 소리 갓트며 흐는 일니 아희 갓지 안니호이 혹 단명홀가 의심하여 왕균이란 사람을 불너 샴를 뵈니 왕균 왈이 아기는 인간 사람 안니라 월궁항아의 정기를 가져시니 반드시 귀히 되련이와 다만 하늘게 득죄하여 인간의 귀향왓시니 전성죄를 이성의 와 다 갓흔 후에야 죠흔 시절을 볼 거시니 선분은 지극히 험하고 후분은 가장 길하다 흐거늘 ... 니 아기 샴쥬를 보오니 반드시 다숫 살이면 니웃 나무입히 바람의 부칠 적의 부모를 일코 정처업시 단이 다가 십오세 전의 다숫 번 죽를 익를 지너고 샴라나면 십칠세에 부인을 봉하고 니십세에 부모를 다시 만나 티평으로 누리다가 칠십이면 세상 인샴를 정치 못흐

59) 그날 밤 꿈의 한 층니 와 일오되 샴셔 전성죄 안니라 형벌을 죠히 녀여 무죄한 빅성을 만히 죽기 킨 글노 자식을 못보게 하여씨니 그티 정성니 지극히미 귀즈를 주너니 여긔 잇지 말고 샴셔 집으로 슈히 도라 흐거늘 꿈틀 씨여 하늘게 축슈하고 부모게 흐직흔 후 집니 도라오니...그날 밤 꿈의 오식 구름니 일어나며 그 속으로 흥포관디흔 저문 선관니 옥홀을 쥐고 느려와 샴셔 압혜 와 지킴 왈 나는 상제 압혜셔 근시흔든 틱을선관이옵씨니 천궁의 득죄하여 인간의 너치시미 갈 고슬 몰나 흐옵씨니 마춤 덕성스 부쳐 지시흐거늘 이리 왓스오니 어엿비 너기쇼셔 ...창 밧게 학의 소리 나며 선네 둘이 드러와 일오되 씨 느껴 가오니 부인은 잠간 편히 누으쇼셔 흐고 오슬 벗기거늘 부인니 자리 우회 누으며 일기 옥동출 탄싱하니 두 선네 옥호의 향다를 짜라 아기를 씨겨 누이고...선네 답왈 우리는 희산 가음아는 선례러니 상셔게 명를 밧즈와 아기낳는 양를 보라 왓습씨니 이 아기 부인은 남양 짜에서 나시기로 밧비 가너이다... 전성 일흠은 월궁쇼이오 니싱 일흠은 남양 짜 김샴셔의 녀즈 숙향니로쇼니다. (정문연A본,58~61면.)

리라. (정문연A본, 6~7면.)

위의 인용문은 숙향의 아버지 김전이 숙향이 아이임에도 기골이 범상치 않자 단명할까 두려워 왕균이라는 관상가에게 사주를 보이는 대목이다. 사주에 의하면 숙향은 다섯 살부터 시련이 시작되어 십오 세 전에 죽을 액을 다섯 번이나 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천상계와 관련된 죄 때문이라고 관상가는 언급한다. 이후 숙향의 인생은 관상가의 사주대로 진행되는 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첫 번째 벌은 다섯 살 때 도적의 난을 당하는 것으로 이는 부모와 헤어지면서 발생한다.

도적의 칼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 벌은 다섯 살 어린 숙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벌이라고 할 수 있다. 도적의 칼에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다섯 살 어린 아이가 피난길에 부모에게 버림받게 되는 상황은 숙향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을 것이다.

김전도 가속를 다리고 강능으로 향하여 가더니 중노의셔 야적을 만나 노복과 직물을 다 일코 처자만 다리고 죽기를 가을 삼아 다라나더니 도적이 급히 다로 거늘 김전부쳐 심니 진혀야 가지 못하니 엇지허리요 인혀야 뒤성통곡하며 숙향아 너 목를 꼭 안아라 하고 등에 언저 업고 댔더니 심이 진혀고 괴운을 거두지 못하여 구으러 댔다가 업혀도지며 잣바도지며 숨을 두루지 못하여 숙향을 안고 가며 일오되 도적니 급혀오니 올리 다 죽을지라 너는 저 바회 밋티 잇거라 너일와 다려가마 하고 ... 도적니 거의 당전흔지라 황겁혀야 억지로 숙향의 손목을 버리집어 안아다가 바회 틈의 안치고 짜라나오지 못하게 큰 돌노 그 압홀 막고 얼굴만 너미러 뵈게 한 후의 죽박의 밥 담은 거슬 억지로 손의 쥐고 기유혀야 달너며 왓 너 쌀 숙향아 여긔셔 놀고 잇시면 저근드시 어뫼혀고 집니 가서 과실 갖자 주마 하고 일은후는 돌쳐셔며 부인 장씨를 호통혀여 가기를 직촉하니 장씨

도 혈 일 업서 디성통곡하며 김전의게 잇쓸이여 가며 다시곰 도라보니 숙향니 바회 틈으로 얼골만 드러니고 혼 손에는 어뭇 쥘든 밥 다문 박아지를 들고 한 손으로 눈물을 씨스며 디성통곡하야 우다가 나중의는 어미만 부르며 목니 머혀 우는 소리 촻촻 머리져거거늘 ... (정문연A본, 7~9면.)

숙향이 반야산 도적의 칼에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은 예정된 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원인은 아버지 김전이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은 김전이 숙향 때문에 행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숙향을 반야산 바위틈에 숨겨놓는 장면이다. 결혼 10년 만에 치성을 드려 겨우 얻은 소중한 자식이었지만 난리 통에 가족 모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자 김전은 숙향을 두고 가기로 결정한다. 숙향을 난리 통에 두고 가면서 김전은 다음 날 숙향을 데려오겠노라 약속하지만 당시 상황은 도둑에게 쫓기는 절체절명 이기에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⁶⁰⁾ 이후 김전은 장씨 부인과 숨을 곳을 마련한 뒤 숙향을 찾으러 나서지만 끝내 찾지를 못한다. 어린 자식을 버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은 숙향과 김전부부의 전생의 업 때문이다.

김전은 천상에서의 신분은 능허선생이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숙향(소아)이 희롱했던 이선의 장인이자 설중매의 아버지였다. 천상에서 이선을 사이에 두고 속을 꿰뚫었던 이들의 관계가 지상에서는 부모자식으로 엮이어, 천상에선 숙향이 능허선생부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가해자였다면 지상에선 아버지

60) 이상구(앞의 논문)는 이 같은 상황을 임· 병 양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조선 후기 인물에게 부모가 살기 위해 자식을 버리거나 구제하지 못하는 피난민들의 행위를 대변한 것으로 보았다. 숙향이 버려지는 상황을 전쟁고아의 비참한 현실로 본 것이다. 최기숙(『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은 김전이 5세 된 숙향을 난리 중에 버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고난 상을 대변하면서 심층적으로는 아버지의 박해라는 주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쫓겨남의 서사는 숙향이 전란이라는 외부적 힘에 의해 버려진다는 설정이지만 피난길의 생존논리에서 아내 대신 딸을 버리므로 아버지의 선택의 대상이 못한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딸 내쫓기/아버지의 박해의 신화적 모티브가 개입되었다고 보았다.

가 숙향의 별에 일정 가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상에서부터 엮힌 이들의 관계는 지상에서까지 이어져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하고 고난을 겪어지기도 하는 복잡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피를 나누는 부모자식의 관계는 인간관계 중 일차적인 관계에 해당된다. 자식은 출가하기까지 부모를 의지 처로 삼고 부모는 그 자식을 보호해준다. 이런 관계이기에 부모자식의 관계는 무조건 적인 신뢰와 사랑이 전제된다고 믿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서로 추구하는 욕망이 다르기에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게 바로 부모자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식의 관계는 그래서 꽤 미묘하고 복잡하다. 특히나 숙향과 김전은 깊고 질긴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들 갈등의 양상은 천상계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들의 관계가 미묘하고 복잡한 것은 천상인연이 엮힌 탓이기 때문이다. 숙향이 능허선생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천상에서의 이들의 악연은 다섯 번째 별인 낙양옥중까지 이어진다.

둘째, 명사계에 들어가는 별이다. 숙향이 두 번째로 받는 별은 명사계에 들어가는 형별이다. 도적의 칼에 죽을 첫 번째 별은 다행히 숙향의 귀한 상을 알아본 도적에 의해 위기를 벗어났지만 숙향은 전쟁고아가 되어 유리걸식하며 부모를 찾아다닌다. 그러다 과랑새를 따라 산속에서 한 궁전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사람이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저승 명사계다. 고전소설 속에서 저승은 주로 죽거나 꿈을 통해서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숙향전〉에서의 숙향은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을 직접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적의 숙향니 마을 샴과 식를 다 일코 혼자 울며 단이다가 멀리 바라보니 산 우희 사람미 왕너흐거늘, 산을 브라고 가더니 산은 첩첩흐고 길흔 험흔디 날은 저물고 비는 곱푸물 건디지 못흐야 남글 의지흐고 너머젼셔니, 문득 청췌 날아와 췌출 물고 손등의 안췌늘, 숙향니 그 췌출 먹으니 눈니 열이고 정신니 췌췌

헛더라. 그 식을 싸라 두어 곳들 너머가니... (정문연A본, 13~14면.)

위의 인용문은 유리걸식하며 부모를 찾아 헤매던 숙향이 명사계를 찾아가는 대목이다. 산 속을 헤매다 과량새가 준 꽃을 먹은 후 어떤 큰 궁전에 다다르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명사계이다. 숙향이 명사계를 다녀왔다는 것은 죽음직전까지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난길은 성인의 몸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으로, 어린 여아의 몸으로 산속을 홀로 헤맸다는 것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향은 길도 험한 첩첩산중에서 들짐승의 위협에다 심한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숙향이 명사계까지 갔다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벌에 의해 두 번째 벌도 숙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숙향에게는 고난의 지점마다 늘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명사계에선 후토부인이 보호와 도움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숙향은 후토부인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벌도 무사히 넘기게 된다.

부인 왈 이 싸흔 황천 사계요 나는 후토부인이로쇼이다 선네 인간의 날려와 곤케 되온 몸을 고흥를 만히 격그실세 너 저즘게 푸는 진나비와 청학과 불근 식와 청조를 다 보너와쓰니 보신잇가...나는 지하의 죠고만 신령이오 선네는 월궁의 웃썸 선네라 잠간 인간의 날려와 고흥하시니 송심나나 그러허리잇가 오늘은 임의 저무러스오니 오늘밤은 날과 한 가지로 좃용니 지너시고 명일노 가쇼셔 하며 큰 잔치를 비설허야 디접허니 (정문연A본, 15면.)

죽음 직전까지 간 숙향을 구해준 것은 저승계를 관장하는 명사계의 후토부인이다. 후토부인은 명사계로 들어온 숙향의 잘못을 심판하고 그 죄를 벌

주는 존재가 아닌 곤경에 처한 숙향을 도와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난중에 유랑하는 숙향에게 청학과 청조를 보내어 길 인도와 배고픔을 해결해줬으며 명사계에서는 쉬어갈 장소와 잔치를 베풀어 숙향을 위로하기 때문이다. 또한 숙향이 심한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일들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숙향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후토부인과 같은 천상계의 조력자, 선녀·화덕진군·용녀·용왕 등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 이때 천상계 조력자의 도움은 주목할 대목이다. 숙향이 위기상황마다 나타나 돕는 천상계의 조력자들에게는 천정원리에 따라 숙향이 다섯 가지 고난을 모두 끝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천상에서 부여한 별을 숙향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숙향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죽지 않도록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하게 된다. 숙향이 중도에 죽어버리면 천상에서 부여된 별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숙향전〉은 그만큼 죄와 별의 임무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작품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숙영낭자전〉에선 〈숙향전〉과 달리 시부와 시비의 모해로 숙영이 자살을 하게 되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다. 그만큼 적강요소가 약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숙향전〉처럼 천상계의 도움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사한 작품은 경판 〈심청전〉으로 심청에게도 조력자의 도움이 적극 개입된다. 그러나 〈백학선전〉과 〈유문성전〉, 〈김희경전〉의 주인공들은 상황이 다르다. 천상계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숙영낭자전〉에 비해 도움이 있기는 하지만 〈백학선전〉, 〈유문성전〉, 〈김희경전〉에서는 천상계의 개입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조력자⁶¹⁾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

61) 적강형 소설 〈숙영낭자전〉과 〈백학선전〉과 〈유문성전〉, 〈김희경전〉에서의 주인공들을 돕는 존재와 그 상황은 〈숙향전〉과는 다르다. 〈숙영낭자전〉은 주인공을 돕는 존재가 아예 없이 위기와 고난을 숙영과 선군이 스스로 해결한다. 〈백학선전〉과 〈유문성전〉, 〈김희경전〉에서는 돕는 존재는 나오지만 이들은 〈숙향전〉처럼 천상계 존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드물게 천상계의 존

다. 이렇게 조력자의 도움이 〈숙향전〉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서사가 천상계의 개입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셋째, 숙향이 포진강에 투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벌로 제시된다. 명사계에서 나온 숙향은 천상에서 자신의 죄를 대변해 준 벌로 지상에 귀양온 장승상부인 덕을 찾게 되고 십년 동안 거처하게 된다. 자식이 없던 장승상 부부는 숙향을 수양딸로 여겨 집안의 대소사를 맡긴다. 그러나 숙향은 자신을 시샘하던 시비 사향의 모함으로 금봉채와 옥장도를 훔쳤다는 누명을 받게 되고 결국 장승상 덕에서 쫓겨나게 된다.

십년 동안 딸처럼 애지중지하던 숙향을 사향의 모함 하나로 쫓아내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 힘들지만 도적질은 중범죄에 해당되는데 사향이 숙향에게 이 도적질의 누명을 씌운 것이다. 이밖에도 사향은 승상이 숙향이 여인의 몸으로 옥장도까지 갖고 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자 숙향이 외간남자와 연을 맺고 있었노라며 사통으로 몰고 간다. 천상계에서 월연단 도적질과 남녀 희롱죄를 저질렀던 숙향은 지상에서도 이와 같은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숙향은 앞서 부모에게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이어 십년을 넘게 의탁하던 장승상 덕에서까지 모함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란으로 가족과 헤어져 유랑하던 어린 숙향에게 장승상덕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고 장승상 부부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숙향니 망극호여 목니 머여 울고 늦기며 지향업시 가며 승상집를 자로 도라보며
희음업시 늦기고 목노화 울고 가더니 압헤 큰 물니 가로젓거늘 물에 빠져 죽으
려 호고 하늘를 부르지져 양천 탄식 왈 쇼첩은 전싱의 무슨 죄로 니 몸니 되어
나서 다숫살의 부모를 일코 혈혈단신니 의지업시 단니다가 나지면 길노 바장니

제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는 노승·유학자·점술사·산신령 등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

고 밤이면 슈폴과 덤불을 의지하여 한숨과 눈물로 일월을 보너더니 천형으로 장승상 부인을 만나 십년을 의탁하여자가 몸의 지은 죄 업시 익히힌 악명을 어더 초치를 보니 놀를 의지하리잇가 부모를 다시 못보고 니 물의 빠져 죽스오니... (정문연A본, 31~32면.)

위의 인용문은 숙향이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신세 한탄을 하다가 포진강에 투신하게 되는 장면이다. 숙향이 장승상댁을 제 2의 의지처로 여기며 지냈지만 사향의 오해와 장승상부부의 불신에 의해 쫓겨나게 되자⁶²⁾ 자신의 삶을 비판하게 된 것이다.

숙향은 포진강에 투신함으로 세 번째 죽을 액을 만난다. 그런데 여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거나 삶의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물에 투신하는 장면은 고전 소설에 익숙하게 사용되는 장면이다. <김희경전>에서도 여주인공 장설빙이 부친이 죽고 김희경은 찾을 길이 막연해지자 강물에 투신한다. 그리고 이때 장설빙을 건져내는 것은 이영찬이라는 지상인으로, 이영찬의 도움을 받은 장설빙은 환혼주라는 약에 의해 희생한다.⁶³⁾ <김희경전>에서의 장설빙의 투

62) 이명현 (「숙향전의 통과제의적 구조와 의미」 - 신화적 구조와 세계관의 변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 2006, 117쪽.)은 이를 숙향이 고아로 유리결석하다 장승상댁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하였지만 다른 구성원들과 혈연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불완전한 상황이기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았다.

63) 청주후인 장소져 설빙은 병진 추칠월 망일에 불효무신을 무릅쓰고 이 물에 빠져 죽는니 텃지일알과 후토신령은 불상이 아옵소서 쓰기를 맞치고 라습으로 나슬 가리며 강에 썩여드니 슬흐다...이적에 너람썩에 서사는 이영찬이라 하는 사름이 벼슬이 참정에 거흐였더니 년장칠십에 강산풍경을 구경하고 도라와 어용이 되어 교기낙기를 일스망 세월을 보너더니 마참 청계를 당하야 종즈 슈인을 다리고 일엽선에 어망을 치고 장강에 증류하야 옥저를 희롱하더니...참정이 취흥을 인하야 야선창을 두다리며 어부스일곡으로 시일을 보너더니 호련 슈상에 푸른거시 썩으며 슈운이 스면에 들너씨늘 가장 고이히 여겨 바라보더니 선두에 다듯거늘 즈셔이보니 이는 곳 사람의 시신이라 참정이 텃경하야 종즈를 급히 불너건지라 하야 야비에 올니고보니 호흡이 슯쳐진지 오턴지라. (<김희경전>, 213~215쪽.) 장설빙이 물에 빠졌을 때 이를 구해내는 것은 이영찬이라는 사람이지만 천상계의 개입도 함께 한다. 장설빙을 건져올렸을 때 가슴에 환혼주라는 사람을 살려내는 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희경전>은 천상계의 개입이 지상계의 일들과 혼재된다면 <숙향전>은 철저히 지상계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판 <심청전>에서의 심청의 투신 구조장면은 천상계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는 숙향과 같다. 즉 적강담이 강한 작품에서는 천상계의 개입으로만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장면은 숙향이 포진강에 투신했을 때의 상황과는 유사하지만 구해주는 존재는 천상적 존재에서 지상인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숙향전〉이 얼마만큼 천상의 개입이 강하고 철저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숙향이 포진강에 빠졌을 때 용녀와 선녀들이 모두 몰려와 구해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용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어제 용왕니 옥경의 올라가 조회하고 물너올 석예 옥제 말삼를 듯즈은즉 월궁쇼 애천상의 득째하여 인간의 너치이미 남양 싸 김전의 집으로 귀향보너여져니 반야산의 가 도적의 죽을 익을 보고 후토부인게 가 죽을 번하고 또 포진물가의 가 죽을 번하고 노전의 가 화덕진군게가 죽을 번하고 낙양 옥중의 가 죽을 번하고 반년 고흥을 하다가 툇을선균을 다시 만나 아들 형제예 쌀 하나 나흔 후 귀히 되리라 하시기로 용왕니 즉시 날려와 물 직힌 관원을 불너 디후하여짜가 평안니 구하여 보너라 하시미 첩니 김상셔 은혜를 갑고자 하여 자원하고 왓삽셔니… (정문연A본, 34면.)

위의 인용문은 숙향을 구해낸 용녀가 숙향의 전생의 일들과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부친과 용녀와 맺어진 인연이 숙향에게까지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숙향은 자신의 고난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임을 다시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의 천상에서 있었던 사건과 앞으로의 남은 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됨은 물론 천상기록까지 점지 받는다. 숙향은 세 번째 포진강 투신이라는 벌을 통과하자 자신의 앞날을 위해 준비된 것들과 이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며 또한 이선을 만나야 부모를 최종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 이로 보았을 때 세 번째 포진강 투신이라는 벌은 숙향에게 고통스러운 벌로써의 처벌행위 뿐만이 아닌 용녀와 김전의 과거의 인연이 숙향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제시해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갈대밭에서 화재를 겪는 형벌이다. 숙향은 용녀와 선녀들의 도움으로 포진강 투신의 별도 무사히 치르게 된다. 그러나 숙향에게는 불로써 행해지는 네 번째의 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진강에서 물으로 돌아온 숙향은 도중에 날이 저물어 갈 곳이 마땅치 않자 때마침 근처에 있던 넓은 갈대숲을 발견한다. 커다란 갈대숲이 그나마 자신의 잠자리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장소라 여겨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작스런 광풍으로 불이 일어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하게 된다.

홀연 남다히로 혼 노인니 막딤 집고 셔서 일오되 네 엇편 아회건딤 이리 곱흔 밤의 이러흔 고딤와 화지를 만나느뇨 숙향니 축슈 왈 나는 부모 업슨 아회옵셔니 의탁홀 딤 업셔 동셔로 바장니옵셔니 길홀 그릇 드러 죽게 되어서오니 덕분에의 구체호와 주옵쇼셔 그 노인 왈 네 일흠은 일르지 안니혀도 알거니와 발셔 화세 급흐니 네 오슬 버셔 섯쁜 딤 두고 몸만 닌 등의 올으라 흐거늘 숙향니 혈 일 업시 오슬 버셔 노코 노인의 등의 올르니 불니 발셔 섯쁜 딤 다다라 오시 다 핫셔라. (정문연A본,46~47면.)

위의 인용문은 불을 만난 숙향이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했을 때 불을 다스리는 화덕진군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되는 장면이다. 그런데 불길을 탈출하기 위해선 옷을 벗어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열다섯 살 처녀가 옷을 벗어야만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벗은 옷은 이선이 숙향의 고난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숙향의 흔적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선이 배우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에서 숙향의 거취를 확인할 때 숙향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증거물로 불에 탄 옷이 남아있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⁴⁾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늠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체온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하지만 맨몸으로 불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속향의 고난이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⁶⁵⁾ 알려주며 그 별 또한 참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벌인 갈대숲 화재는 속향이 이전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준다. 왜냐하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파괴적 힘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재생의 힘도 갖추고 있어 속향의 이전 것들이 불과 함께 태워졌기 때문이다. 앞의 고난인 물도 마찬가지다. 물은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속향이 물의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은 물로써 먼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뒤이어 불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속향의 예전의 잘못된 것들이 태워지고 새롭게 재생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속향이 자신의 앞날에 변화를 갖고 오는 존재인 마고할미와 이선을 만나는 지점도 네 번째 불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터다. 지나왔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지난날을 불에 태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양옥중에서 겪는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는 어릴 때 생이별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입히는 형벌로, 서로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

갈대숲 화재인 네 번째 벌을 통과한 속향은 마고할미의 주선으로 천상배필인 이선과 결연을 맺게 된다. 여기서 결연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천상에서의 속향은 가정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하였기에 속향의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상에서

64) 심치열, 앞의 논문, 263쪽.

65) 신재홍은(앞의 논문) 불의 위협 앞에 속향은 그나마 지녔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발가벗은 채 화덕진군의 등에 업혀 가는 모습을 죽음에 임박한 인간이 신에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내맡긴 형상으로 해석하였다. 이상구(앞의 논문)는 초월적인 존재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속향이 별거벗기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유랑결인으로서 정처 없이 떠돌던 속향이 겪었던 현실적 고난 가운데 하나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숙향은 자신의 애정을 인정받기 위해 이선에게 정상적인 육례를 요구하고 여부인의 입회하에 예법에 따라 혼례를 올린 뒤 이선의 부인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결연이라 할 수는 없다. 이선의 부모 허락 없이 몰래 이루어진 혼례이기에 숙향에겐 위기가 닥치기 때문이다.

일일은 상서의 부인니 상의 괴상니 전과 다르플 보고 즈로 출입호플 슈상히 녀녀 좋다려 무르신티 좋들리 괴이지 못호야 올훈 디로 알의니 부인니 디경호야 즉시 상서게 괴별호온디 상서 듣고 크게 놀나 헤오되 이는 저저 슈혼호 일니오 또 선니 호탕호다 호니 달니는 금호 슈 업스니 그녀직 의지업싸 호플 듯고 가마니 낙양 념의게 괴별호니라 (정문연A본, 91면.)

위의 인용문은 이선과 숙향의 결연을 뒤늦게 알게 된 이선의 아버지 이상서가 숙향을 처리해 달라고 낙양수령에게 알리려하는 대목이다. 이상서는 자신의 며느리 될 여인이 미천한 고아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숙향을 죽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다. 숙향이 시아버지 이상서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시비의 정절모해와 시아버지의 동조로 죽게 되는 <숙영낭자전>의 숙영이 처한 상황⁶⁶⁾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이때 숙향이 처한 상황은 시아버지 이상서의 명예 의한 것이긴 하지만 낙양옥중에서 숙향을 죽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부친 김전이다.

(ㄱ) 밤중의 관치 와서 잡아다가 끌이고 원니 문왈 네 엇썌 사람이 완디 상서딕 귀공즈를 호호는다 너게 괴별호야 죽이라 호여시니 날을난 쥬곰도 원치 말나 호고 결박호야 치라 호니 숙향니 통곡 왈 ...
선이 호호야 학업을 전패호는지라 위공니 맛동싱의 현 일니기로 그르다 못호고

66) 일국 디가규중의 외인 출입도 만스무석이디 허물며 안목의 분명호 일을 보와신이 범연니 나스린이라 호고 창두을 호령호여 왈, 각별 업치호여 종스질호라 호신니... <숙영낭자전>, 263~264쪽.

선비는 두 번 장가 못보닐 거시니 저 사람을 죽이고 다른 공후의 딸을 다려올여
하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 하여시디 불쌍한 줄은 임의 아오되 당시 이상서 말
를 뒤 감히 듯지 안나하리오 년고로 죽이려 하너이다. (정문연A본, 92~ 94면.)

(ㄴ) 김전 왈 네 본향은 어디며 일홈은 무어시며 뒤 집 자손니며 나흔 몇치나 흔
다 낭지 정신을 계유 찰여 왈 다숫 살의 부모를 일코 유리기결하야 단니기로 본
향과 부모의 성명을 모로더니 자란 후 전초로 듯즈오니 김상서의 딸이라 호으며
일홈은 숙향니옵고 나흔 십육세로쇼이다. (정문연A본, 96~97면.)

(ㄱ)은 이상서의 명을 받은 김전이 숙향을 취조하는 장면과 장부인에게
숙향을 죽이려하는 연유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다. 어린자식을 반야산에서 위
기에 노출시키던 김전은 다시 숙향의 죽을 위기에 몰아넣는다. 이상서가 숙
향을 죽이라고 몰래 알린 낙양수령이 숙향의 아버지 김전이었던 것이다. 김
전은 숙향이 자신의 딸인지도 모른 채 상관의 명에 따라 숙향을 죽이려 한
다. 자신의 딸임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까지 벌
어지는 것이다.

(ㄴ)은 장부인이 꿈에 도움을 청하는 숙향을 본 뒤 김전에게 숙향을 죽이
지 말고 한번 만나게 해 달라는 말을 하자 이에 김전이 숙향을 재취조하는
장면이다. 김전은 취조를 통해 숙향이 자신의 딸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지
만 어릴 때 생이별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숙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장부인 역시 숙향을 가련하게 여기지만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지 못
한 채 그리워하던 자식과 다시 헤어지게 된다. 천상계에서 이선을 사이에 두
고 미워하던 이들의 관계가 지상에까지 이어져 얽히고 꼬여 쉽게 풀리지 않
는 것이다.

숙향이 천상계에서 이선으로 인해 능허선생부부와 설중매에게 상처를 주

정은 천상에서 적강한 뒤, 다섯 살 반야산에서 고난이 시작되며 이후 마을 · 명사계 · 장승상덕 · 포진강과 갈대밭을 거쳐 이화정을 중간기점으로 갔던 장소로 돌아본 뒤, 계양을 거쳐 양양에서 부모를 찾은 다음 천상으로 복귀하는 순환구조를 보인다.⁶⁷⁾

2. 피해자로서 고통의 체험과 극복, 김전부부

고전소설은 대개 주인공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모든 사건은 주인공에게 집중되어 있고, 주인공을 둘러싼 위기와 갈등 속에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렇기에 주인공의 존재감은 작품 속에서 월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숙향전>도 예외는 아니다. 숙향의 인생을 중심축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모든 사건도 숙향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숙향전>에선 숙향의 존재만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 숙향과 주변 인물들이 얽히면서 서사를 전개하는 데 중요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숙향전>의 서사는 주인공이 아닌 숙향의 부친 김전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에서 서사의 첫머리가 주인공 부모의 이력을 열거해놓거나 주인공의 태몽으로부터 진행되는 거에 비해 <숙향전>은 김전이 반하물가의 거북인 용녀를 구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는 특이한 설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색다른 시작을 보이는 이유는 김전과 거북의 삽화가 <숙향전> 전체의 서사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67) 이에 대해 임치균(<숙향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태학사, 2002, 127쪽.)은 <숙향전>을 숙향이 왔던 길을 거꾸로 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독특한 대칭적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숙향전>은 전개된 순서를 거꾸로 접어오면서 숙향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분리와 함께 고난이 가중되다가, 돌아올 때는 회합과 함께 즐거움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일일은 김전이 친한 버지 조흔 티슈 햏여 가는 길희 위로햏고자 햏야 햏쥬 성찬을 갓쵸와 나귀에 실니고 반햏슈라 햏는 큰 물을 건너 가더니 물가에 어부들이 큰 거북 한나홀 자바 구어 먹으려 햏거늘 김전이 즈세이 보니 그 거북이 눈물을 흘리며 가장 슬햏햏거늘 더욱 고이히 녀겨 갓가이 슬햏본즉 니마 우희 햏늘 천씨 잇고 비 가운데 목숨 슈쵸와 복 복쵸 완연햏 듯 햏거늘 일정 비샏햏 즈싱이로다 햏고 분부햏여 죽이지 말고 도로 물의 노햏라 햏디...김전이 그 거북이 죽게 되물 가장 잔잉히 녀겨 즉시 포디를 여고 반전 열닷 양과 햏쥬성찬을 쥬고 밧고와 물의 노햏니 그 거북이 김전을 즈로 도라보며 가더라. (정문연A본, 1~2면.)

위의 인용문은 김전이 친한 벗이 태수 발령 가는 것을 위로하러 가는 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북과 맞닥뜨리는 장면이다. 이때 김전은 거북의 몸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예사 짐승이 아니라 생각하고 어부에게서 거북을 살려낸다. 이렇게 김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거북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숙향전〉의 서사는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끌여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김전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북인 용녀는 이후 길을 가다 물난리를 만난 김전을 돕고, 가난한 선비였던 김전의 혼인을 돕고, 숙향의 목숨을 구하며, 이선의 구약 여행 시 선약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⁶⁸⁾ 목숨을 구해주는 귀한 인연으로 시작된 김전과 용녀의 관계가 다른 이들에게도 유기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숙향전〉의 서사는

68) 장흥재(〈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의 보은사상, 『국어국문학』 55-57, 국어국문학회, 1972, 460쪽.)는 〈숙향전〉은 용녀의 화신인 거북을 살려준 데 대한 보은사상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당대에 만 보은을 베푸는 것이 아닌 후대인 숙향에게 양대인 숙향과 이선에 걸쳐 두루 걸쳐 보은을 행한 점을 들어 보은사상을 〈숙향전〉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신재홍(앞의 논문)은 보은은 인간사에 관련되는 원초적 윤리의식의 하나로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지 이 작품의 핵심사상으로 못밖을 수 없다고 보았다. 거북의 보은 이야기가 여러 번 되새겨지고 있기에 거북의 보은담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계기로 강조되고 있지만 보은담은 도움을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원초적인 윤리의식으로 설명한다고 보았다.

작품 서두에서 맺어진 인물들 간의 관계가 작품의 결말까지 작가의 의도 하에 긴밀하게 연결하여 진행된다.

〈숙향전〉 서사의 앞머리를 차지하는 김전은 그 부인까지 모두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이다. 숙향의 부모 김전부부는 천상계에선 봉래산의 선관·선녀인 능허선생부부였는데, 이들은 상제에게 굴 진상을 잘못된 죄로 인간세상에 귀양 온 존재다. 그러나 김전부부의 적강한 죄명은 굴 진상을 잘못했다는, 즉 자기 일을 태만히 한 죄 때문인 거 같지만 이는 표면적인 죄에만 해당한다. 이면적인 죄에 해당하는 것은 천상계의 소아(숙향)를 미워한 것으로 이들이 적강해서 당하는 형벌은 이면적인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숙향 때문에 피해를 당한 김전부부는 천상계에서는 숙향의 희롱죄로 자살을 하게 되는 설중매의 부모였으며 지상계에선 숙향과 부모·자식의 연으로 맺어진다. 천상계에서부터 엮힌 이들의 인연은 결국 지상계에선 혈연으로 맺어져 부모·자식간이 체험해야 할 고통을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경관 〈심청전〉의 심현과 심청도 마찬가지다. 심현과 심청은 술을 나눠주고 얻어먹은 천상에서의 죄로 엮혀 지상에서 부녀관계가 되어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김전부부와 숙향의 천상관계와 김전부부의 적강한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능허선싱 부체 완경허라 방장산의 갖싸가 혼씨 굴 진상을 잘못된 죄로 인간의 귀향 갈세, 능허선싱은 남양자 우수선싱의 아들니 되어 나고, 기쳐는 영천자 장호의 딸이 되어 나셔 또 만나 부뷔 되어서나, 톱을니 쇼아를 위허야 설중미를 중히 아니 너기는 줄 알고, 능허선싱니 톱일 쇼아를 원망허는 타스로 니싱의 나와 그 딸니 되어 나셔, 오세에 일코 십오 년 간장을 썩이게 허였고,... (정문연A본,

194~195면.)

김전부부의 천상신분과 그 죄가 무엇인지는 사위인 이선이 구약여행을 떠났을 때 선관의 말을 통해 밝혀진다. 김전부부의 죄는 꿀 진상을 잘못된 죄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 세상에 귀양 왔지만 이와 더불어 소아를 원망했기에 부모가 되게 하여 자식을 잃고 십 오년동안 간장을 썩게 한다는 내용이다. 천상에서 설중매의 부모였던 김전부부는 사위인 이선이 숙향 때문에 자신들의 딸인 설중매를 중히 여기지 않자 소아를 원망한다. 원망하는 이유는 나름 합당해 보이지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천상에선 원망하는 마음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적 감정은 철저히 배격하는 천상계에선 이 역시 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 때문에 김전부부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 딸마저 다섯 살 때 잃어버리는 형벌을 당한다. 숙향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가슴앓이를 하며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김전부부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다.

김전은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다. 숙향을 반야산에 버리고 왔을 뿐 아니라 낙양 옥중에서는 눈앞의 자식도 몰라보고 죽음에 몰아넣으려 했기 때문이다.⁶⁹⁾

김전은 서사의 시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낱 미물의 고통도 그냥 넘기지 않는 어질고 선량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곧 죽게 될 거북(용녀)의 고통을 볼 수 있었으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어부들에게 돈을 선뜻 내놓아 거북을 구해낼 수 있었다. 지인지감을 알아보는 장인에 의해 결혼도 성사된다. 뿐만 아니라 태수 자리에 있을 때도 정사를 잘한다고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어진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반강제적으로 죽음으로

69) 김경미(앞의 논문)는 숙향이 전란 중에 유랑하며 '오세에 부모를 잃고'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반복한다는 점을 들어 숙향을 버려진 아이로 보고 있다. 다른 선택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매우 급한 상황이었기에 숙향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본 것이다.

몰아넣었을 리 없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진다는 왕균의 사주를 듣고 숙향을 잃어버릴 것을 대비, 옷깃에 표식을 남기는 것도 김전이다.

김전 왈 늦기야 혼 쌀를 어딴쌌더니 사랑흔는 마음니 진치 못혀여서 일혀샤오니 싱각혀오면 천지 망극혀와 죠석의 눈물로 지늬웁써니 오늘날 하늘리 도으샤 성인을 만나오니 천만 번 빌건디 숙향을 츠즈 보게 혠희소서. (정문연A본,151~152면.)

위의 인용문은 숙향의 행방을 알고 있는 노인(용왕)에게 김전이 그간의 심중의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이다. 난중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식과 생이별해야했던 부모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야산 도착 꽤거리 틈에 숙향을 부득불 놓고 왔지만 그로인해 김전은 십년이란 세월을 가슴앓이를 한다. 이 모든 것이 김전이 지은 천상의 죄 때문에 생긴 별이었고 김전은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전과 숙향의 관계는 천상과 지상이 유기적으로 얽혀 복잡 미묘하기에 관계회복에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천상계에서 원망하던 이들은 지상계에서 부모 자식이 되어 다시 만났지만 완전한 관계회복은 긴 시간을 보낸 끝에야 가능해진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벌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천상에서 서로 원망하던 사이가 부모자식으로 엮인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작가가 천상인연을 엮는데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 현세가 결정된다는 불교적인 운회사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전부부와 숙향은 전생의 자신들의 업을 풀어내기 위해 현세에 부모자식으로 맺어진 것이다. 이 같은 관계는 김전부부와 숙향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즉 장승상부인과 숙향의

관계, 설중매와 숙향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II장에서 살펴본 적강형소설의 작품들이 주인공의 적강만 다루었다면 <숙향전>은 이처럼 각 등장인물들의 죄와 형벌까지 꼼꼼히 다루고 있다. 이는 <숙향전>이 그만큼 적강이 잘 실현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각 인물들의 관계를 죄와 형벌이라는 틀에 맞춰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윤희라는 동양적 사고로 구현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원인제공자로서 애정성취, 이선

이선은 천상계에서의 지위는 별들을 다스리던 으뜸 신선인 태을선군이었다. 이선은 부인도 이미 있었을 뿐 아니라 상제가 특별히 사랑했기에 숙향의 희롱을 받기 전까진 천상계에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숙향이 이선에게 반해 먼저 희롱하고 월연단을 훔쳐다주자 그것에 동조한 이유가 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선은 지상엔 조정공신 이상서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숙향이 이른 나이에 죄에 대한 온갖 고난을 겪었던 거에 비해 이선은 별다른 고초 없이 성장 한다.

숙향 왈, “한가지로 득죄하야 인간의 귀향 왓사 하되, 선군은 호환으로 지닌게 하고, 나는 엇지 고행으로 지닌게 하였는고.” 옥네 덕왈, “처음의 천상의셔 득죄 할 제 부인니 먼저 희롱흔은 죄로 중하고, 또한 선군은 상제 압해서 일각도 찌나지 안이하는지라. 상제 가장 사랑하시되, 월궁향애 정죄하시미 마지못하여 인간의 구향 보너지나, 지금이라도 사랑하시는 쓰지 중하시기로 귀히 되게 하였네이다.” (정문연A본,37~38면.)

위의 인용문은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이선의 형벌이 숙향보다 약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숙향이 희롱죄와 월연단 훔친 죄로 두 가지를 저지른데 비해 이선은 남녀 희롱죄만 지었으며 또한 상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숙향보다 형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선의 죄에 대한 형벌은 성인으로 성장한 뒤부터 치르게 된다. 이는 다섯 살부터 형벌을 치러내는 숙향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선이 죄를 짓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숙향이기에 숙향의 죄가 클 뿐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별도 가혹한 반면 이선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적당했기 때문에 숙향에 비해 비교적 평탄한 삶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⁷⁰⁾ 그러나 실질적으로 숙향이 죄를 저지르게 한데는 이선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에 이들의 인연은 지상으로까지 연결되며, 또한 이선이 숙향에게 애정성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선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배필은 오직 월궁소아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숙향과의 인연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장성한 뒤 대성사를 찾았을 때이다. 대성사에서 숙향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된 이선은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이화정에서 마고할미에게 일정의 시험을 거친 후 숙향과 결연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선이 숙향과 결연하기 위해 먼저 숙향의 고난여정들을 돌아본다는 데 있다.

첫 번째, 숙향의 고난 답습여정이다. 대다수 적강형소설에서 천상계 인물이 적강하게 되면 지상에서 배필이 되는 인물은 똑같은 유배기간을 가지고 동시에 적강한다.⁷¹⁾ 천정배필이 아닐 경우, 즉 부모자식관계라던가 일반적인 지인인 경우는 유배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숙향전>의 김전부부와 장승상 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유배기간보다 길고, 경판본 <심청전>의 심청과 심현

70) 조용호(「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257쪽.) 경일남(「숙향전의 고난 구조와 결연 의미」, 『한국 고전소설의 구조와 의미』, 역락, 2002, 153쪽.)

71) 조용호 위의 논문, 256쪽.

의 경우도 부너지간으로 각각 유배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II장에서 살펴 본 적강형소설의 남녀주인공들은 모두 똑같은 유배기간을 정해서 적강했으며, 이때 이들이 지상에서 형벌을 받는 동안 성취해야 할 1차적인 목적은 천정연분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에 따라 천정연분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인공들의 탐색담은 적강의 강도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백학선전>의 유백노, <숙영낭자전>의 선군, <김회경전>의 회경과 <유문성전>의 문성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중 특히 <숙영낭자전>의 선군과 <백학선전>의 유백노가 이선처럼 천정연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숙영낭자전>의 선군은 천정연분을 안 후로는 삶의 목적은 오로지 숙영과의 결연에 있었으며 <백학선전>의 유백노도 마찬가지다. 유백노가 하는 행위의 대부분 즉, 벼슬에 급제하는 것도 여주인공 조은하를 찾기 위한 방편이며,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순전히 조은하를 찾기 위해서였다. <숙영낭자전>의 선군과 <백학선전>의 유백노는 자신들의 천정배필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숙향전>의 이선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문성전>과 <김회경전>의 문성과 회경도 각각 자신의 천정배필을 찾기 위함이지만 이들은 이외에도 영웅의 능력획득을 위한 점을 추가시켜야 한다.

(ㄱ) 상제 전교하시되 티을야 인간 즈미 엇찌허더뇨 네 쇼이를 만나본다션니 복지 샴피허더니 상제 허 선네를 명허샤 반도 들과 계화 허 가지를 니션를 주라 허시니 그 선네 옥반의 반도를 담아들고 쏘 허 손의 계화 허 가지를 쥐고 날러 오거늘 복지허고 두손으로 바드며 선네를 얼푸시 보니 선네 붓그려 몸을 두루혈 제 손의 썸 옥지환의 진쥬 계화의 결여 션의 압해 썸러지거늘 가마니 허 손으로 쥐고 다시 희룡코자 허더니 덕성스 둥드리 지식밥 먹노라 허고 석종을 치니 그 쇼리에 놀나 썸미... (정문연A본, 64면.)

(ㄴ) 쇼애 인간의 완다 허오미 좃고자 허야 왓스오나 만나볼 길 망년허오니 오늘

할미게 족족 난 곳을 못고즈 왓스오니 할미는 괴이지 말으시고 같으쳐 주쇼셔.
(정문연A본, 70면.)

(ㄷ) 니싱니 하늘을 가르쳐 밍세 왓 부뵤 허치 안니시고 비록 공후 부마를 삼으셔도 나는 결단코 세상의 잇지 안니호을 거시오니 할미는 하히갓즈온 은퇴를 날리오스 쇼아 잇는 곳만 덕분의 같으쳐 주시오면 싱전 샹후의 은혜를 갑스오리이다. (정문연A본,72면.)

위의 인용문은 이선이 숙향이 자신의 천정연분임을 알고 마고할미를 찾아와 숙향의 거처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이다. (ㄱ)은 이선이 대성사를 찾아가 꿈을 통해 숙향을 만나게 되는 대목이다. 이때 이선은 숙향을 처음 만나게 되고 이후로는 오직 숙향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중 조장이란 장사치가 숙향이 수놓은 요지연 잔치 그림 족자를 갖고 거기에 맞는 글씨를 써넣기 위해 명필가로 알려진 이선을 찾아온다. 대성사에서 꿈을 꾸 이후 부귀공명에 뜻이 없이 숙향 만을 그리던 이선은 요지연을 수놓은 족자가 이화정 마고할미에게 샀다는 것을 알게 된다.

(ㄴ)은 이화정을 찾은 이선이 마고할미에게 족자와 숙향에 대해 묻는 대목이고 (ㄷ)은 병자인 숙향을 이선의 부모가 며느리로 들일일 없을 거라며 찾지 말라는 마고할미에게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숙향은 꼭 찾겠노라는 이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고할미는 그런 이선을 시험하기 위해 숙향의 거처를 자세히 알 수 없다며 예전 숙향이 머물렀던 곳들을 알려준다. 이에 이선은 숙향을 찾기 위해 숙향이 거쳐 갔던 곳들을 일일이 답습하는 여정에 오른다. 이것은 이선의 (1차) 여정으로 이는 <숙향전> 서사의 2차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선의 1차여정기〉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선의 1차 여정은 이화정을 출발점으로 남양땅 김전의 집을 거쳐 장승상덕, 포진물가와 화전을 돌아 다시 이화정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 1차 여정은 숙향이 지나온 고난 여정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선은 이 과정을 통해서 숙향이 힘든 형벌을 겪었음을 여실히 알게 된다. 남양 땅 김전의 집을 찾았을 때는 숙향이 어떻게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장승상덕을 찾았을 때는 숙향이 사향의 모함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포진강에서는 숙향이 물귀신이 될 뻔 했던 상황, 갈대밭에서는 숙향이 타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위기의 상황들을 모두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숙향이 지나왔던 과거의 시련을 인지하며 공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1차 여정은 이선이 현시점에서 고통을 느끼는 여정으로도 볼 수 있다.

(ㄱ)싱니 혈일 업서 인호여 하직호고 도라오는 길의 포진물의 와 츠자되 알니 업셔니 한노인 왈 년전 월일의 모양니 이러이러호 아회 승상딕으로서 나와 이 물가의 와 울며 일오되 승상딕 샴향니로호여 익미한 악명을 싣고 비명의 죽노라 호고 이 물의 싸져 죽엇너이다 호거늘 싱니 참담호 정스를 이기지 못호여 가졌 쓴 금를 프라 향축을 갖초고 제문 지여 물가의셔 제호더니... (정문연A본, 75~76면.)

(ㄴ)노인 왈 그리면 저즘기 예 와서 불에 타 죽은 아훤가 보다 그딕 정 보고즈

헝거든 저 직 무덤이에 가서 썩다귀 탄 거시느 보고 가거라 헝거늘 니랑이 가보
니 과년 녀즈의 의복탄 직는 분명히되 썩탄 거슨 업거날 도라와 노인다려 왈 숙
향니 진실노 불의 타 죽어시면 의복탄 직만 잇고 썩탄 직는 업는이잇가 쇼기지
말으시고 어여비 너기스 바로 가르쳐 주소셔. (정문연A본,78~79면.)

이선이 여정을 떠난 것은 숙향을 찾아내기 위한, 즉 자신의 천정배필을
찾아 결연을 맺기 위한 일이었다. 그랬기에 여정의 출발 시 이선은 숙향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남양 땅 김전의 집과 장승
상 덕을 거쳐 포진물가에 이르자 상황이 변한다. 포진물가에서 숙향이 죽었
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다. (ㄱ)은 포진물가에 도착한 이선이 한 노인으
로부터 숙향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 대목이다. 장승상덕에서 사향의
모함으로 숙향이 비명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이선은 참담한 심정을 이기
지 못하고 숙향을 기리며 제를 드린다. 천정배필인 숙향을 만날 기대감에 차
있던 이선에게 숙향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천정배필을
찾아 떠난 여정이 애정상실을 겪는 여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애정상
실을 겪게 되는 포진물가는 이선에게 애정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
는 전환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선의 제를 받은 용왕이 숙향을 구해 살
려보냈다면 그 간 곳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포진강은 숙향에게도 처벌행위에
서 그치는 장소가 아닌 용녀와의 인연, 이선과 천상에서 있었던 사건과 숙향
의 죄명,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주요
장소였듯이 이선에게는 애정상실에서 벗어나 애성성취를 향해 가는 전환점
이 되는 곳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ㄴ)은 이선은 용왕이 알려준 대로 갈대밭을 찾아가 숙향의 흔적을 찾는
장면이다. 죽었다고 믿었던 숙향이 살아있다는 말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찾
아 간 갈대밭에서 화덕진군은 숙향이 불에 타 죽은 아이인 것 같다며 뼈를

찾으라고 말한다. 다행히 이선은 숙향의 뼈 대신 옷가지 탄 흔적만 발견하여 숙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에 이 여정은 숙향의 시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여정일 뿐 아니라 이선이 애정상실을 경험한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선의 1차 여정은 천정배필을 실현시키기 위한 탐색담으로서의 여정이자 숙향의 고난과정을 답습하는 간접 체험담으로서의 여정⁷²⁾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정을 모두 거친 후에야 이선은 숙향과 이화정에서 결연하게 된다.

두 번째, 황후의 구약여정이다. 이선의 두 번째 여정은 구약여행으로 〈숙향전〉 서사의 3차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이 여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황후의 병을 고치기 위한 구약담에 해당된다. 황태후가 병이 들자 이선은 약을 구하러 떠나게 된다. 이선이 가게 된 이유는 청혼을 거부당한 양왕이 앙심을 품고 이선을 천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이선이 다녀오는 장소는 황태후의 병을 살리기 위한 약만을 구하는 곳(봉래산 개언초, 천태산 벽이용, 서행용왕의 계안주)만이 아닌 각각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선의 2차 여정은 남해가가 출발점이다. 남해가는 남해 용왕이 관장하는 곳인데 남해 용왕은 김전이 반하물가에서 목숨을 구해준 거북이 용녀와 남매지간이다. 이선은 남해가에서 남해 용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작가가 인연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2차 여정을 도와줄 조력자와 동행하게 되는데 그 존재는 선관수업을 받던 남해용왕의 셋째아들인 용자다.

(7) 천궁의 계실 제 지은 죄 잇스오니 고흥를 지너와야 전싱죄를 쇠멸호을 거시

72) 심치열, 앞의 논문, 2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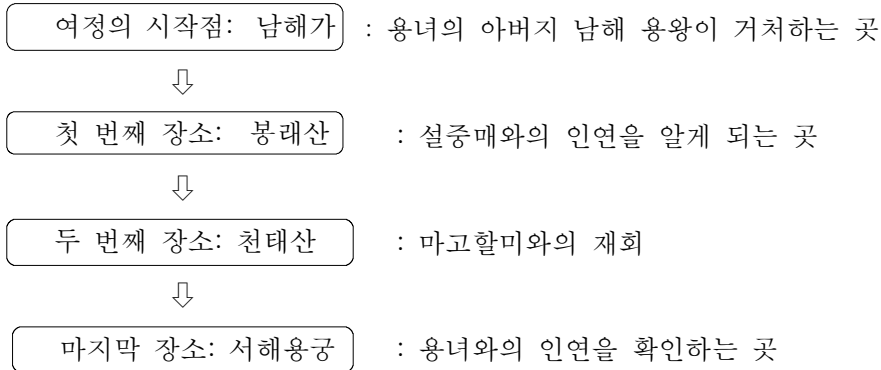
오니 부디 친히 가시련이와 이 압길히 하 험호오니 가실 길을 싱각호오미 심너
호너이다 호고…. (정문연A본, 175면.)

(ㄴ) 선성이게옵서 네 공업은 다 일위시나 마츨 천상 티을성이 모든 성신과 선관
를 가음아더니 상제거 득죄호야 인간의 귀향왓시니 이제 오십여 연를 지니면 도
로 천상으로 갈 거시니 티을션니 와야 네 일흠니 선관 안에 올을 거시미 이제
티을션니 황티후 병를 구호랴 호고 봉늬산으로 약 어드러 갈 제 네 집으로 지닐
거시니 네 티을를 피셔 봉늬산의 가 공부호야 약를 어더오면 선관니 슈히 되리
라 호시거늘 도라왔너이다. (정문연A본, 175~176면.)

(ㄱ) 은 이선이 2차 여정인 구약여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는
장면으로 남해용왕이 천상죄를 소멸하려면 고행을 겪어야 하지만 갈 길이
힘해 걱정이 된다며 이선에게 일러주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황후의
약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던 여정이 이선의 천상죄에 대한 형벌로 준비되었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이선이 거쳐 가는 곳은 회회국, 함니국, 유리국,
교위국, 우희국 등의 열두 나라들로, 이 열두 나라는 사람들이 게처럼 옆으
로 걸고 차만 마셔도 몸이 새처럼 가벼워지기도 하는 나라들로서 상상의 나
라들이다. 이선은 이 나라들을 통과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된다.

(ㄴ)은 남해용왕의 아들인 용자가 어떻게 하여 이선과 2차 여정을 동행하
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천상계에서는 구약여정으로 고행을 겪을 이
선을 위해 용녀의 조카인 용자까지 여정의 조력자로 준비시킨다. 이는 서사
의 처음엔 용녀를 그리고 그 결미에는 용녀의 조카인 용자를 배치시켜 등장
인물들의 관계가 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
된 장치라 할 수 있다.

< 이선의 2차 여정기 >



이선이 황태후의 약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 가야하는 장소는 봉래산이다. 봉래산은 개연초라는 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천상계의 설중매와의 인연을 알게 해주는 곳이다. 두 번째 장소는 천태산이다. 벽이용을 구하게 되는 이곳에서는 마고할미와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장소는 첫 서사와 맞물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로 서해용궁이다. 서해용궁은 김전이 서사의 첫머리에서 구해준 용녀가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선의 구약여행은 황태후를 살리는 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설중매와의 천생인연과 지상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마고할미와의 재회⁷³⁾와 마지막으로 용녀와의 인연을 재확인해주는 여정이기도 하다. 이 2차 여정은 다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표면적으론 황후의 약을 구하고, 이면적으론 전생죄를 소멸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천상과의 설중매와의 인연을 알게 하고, 또한 마고할미와 용녀와의 재회를 통해 재차 인연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정인 것이다.

73) 할미 청삼살기를 달리고 나뭇를 키거늘 상세 나아가 절하고 문왈 권탁산니 어디니잇가 그 할미 왈 니거시천태산이라 또 문왈 옥포동이 어디니잇가 할미 왈 날려온 디 나라 그리호오면 마구선네 어디 계신이잇가 그 한미 손을 이마의 언쑈 이윽키 보다가 일오되 너 눈이 어두어 그티를 몰나보니 그티는 누라 호며 마구할미는 누로서이다. (정문연A본, 205면.)

(ㄱ) 규루선일너라 상서의 손을 잡고 왈 반갑다 툇아 인간 자미 엇써터뇨 설중미 그딴들 위햐야 인간의 날려갓써니 어더본다 상세 왈 니션은 인간의셔 고히겜이오 자미는 보지 못햐엿고 설중미란 말삼를 더욱 아직 못햐리로다 그 션관이 쇼왈 툇을이 밧셔 션간 일을 이져쫓다 햐고 ... (정문연A본, 193면.)

(ㄴ) 동지 차를 드리거늘 바다 마시니 그제야 천상 툇을성으로서 작궤햐고 인간의 귀향은 일과 상계게 말뭇 바다 봉낙산의 와 노다가 능허션의 딸 설중미로 더부러 부부되엿슨 일과 좌우의 안저는 션관이 다 손알레버진 줄 아고 눈믈 지여 왈 나는 궤 중햐야 인간의 날려가 고히햐노라. (정문연A본, 194면.)

(ㄷ) 션관 왈 능허션싱의 딸 설중미는 양왕의 딸리 되어시니 그딴 들지 부인니 되리라 상세 문왈 설중미는 무슴 일노 인간의 날려가며 쇼애는 어니 김전의 딸리 되고 설중미는 어니 양왕의 딸리 되엿는고 ... 설중미는 그딴 인간의 날려그미 보려햐고 자슈햐야 약슈의 싸져 죽으니 후식의 귀히 되게 햐야 양왕의 딸리 되엿는니라 상세 왈 그리면 설중미 너 부인니 먼저 뭇 거시어늘 엇지 쇼애 먼저 되엿는고 션관 왈 그딴 인간의 날려가문 쇼애를 위햐야 날려갓실 썸 안니라 쇼애는 월궁향아의 아니라 향애 비록 무이 녀여 인간의 보너여시나 엇지 도라보지 않이리요 쇼아는 첫 부인니 되여짜가 나히 칠십니 츠면 그딴로 더부러 햐가지로도 천산의 올라올리라 상서 왈 너 양왕의 혼스를 거절햐다가 이런 거름을 햐니 중시 거절코져 햐여써니 천정니오미 도망치 못햐리로다... (정문연A본, 194~195면.)

위의 인용문은 이선이 봉래산에 도착해 자신이 설중매와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다. 이선은 구약여행을 통해서야 자신이 천상계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과 설중매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의 죄가 속향과 희롱한 죄 뿐만 아니라 설중매와 능허선생부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이 때서야 깨닫게 된다. 작가가 구약 여행 때 설중매와의 관계

를 알려주는 것은 이들이 천상에서 엮힌 관계를 풀어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숙향 때문에 상처를 입은 설중매는 가장 억울했을 것이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반해 자신을 버렸고 지상에서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하기 때문이다. 설중매가 자신 때문에 자살하여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이선은 설중매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구약여행을 마친 뒤 그녀와의 결연을 통해 속죄를 하게 된다. 천상에서 엉켜있던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4. 대변자로서 고통과 선의 실현, 장승상부인

대개 적강형 소설은 인물들이 주인공만 적강한다. 앞서 살핀 작품 〈백학선전〉, 〈유문성전〉, 〈숙영낭자전〉, 〈김희경전〉도 모두 주인공만 적강하였는데 이에 비해 〈숙향전〉은 주변인물까지 적강한다는 것이 특이점이라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장승상부인의 적강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다. 이러한 점들이 〈숙향전〉이 여타의 적강형 소설과 달리 적강구조가 치밀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장승상부인의 천상신분은 봉선이었으며 그 죄는 숙향의 잘못을 변론한 것 때문이다.

선네 월궁의 계실 제 헝아게 득죄호야 고흥를 격게 헝와시며, 그씨예 봉선이란 선네 옥제게 알외고 그딴를 구호다가 쏘한 득죄호여 남군 짜 장승상의 부이니 되게 헝여시니... (정문연A본,16면.)

위의 대목은 장승상 부인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이다. 천상계에서 장승상부인은 숙향을 몹시 아꼈던 것 같다. 그랬기에 향아가 숙향에게 큰 벌을 내리려하자 장승상부인은 숙향을 구하려고 상제 앞에 나서서 잘못을

대변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다 그것이 죄가 되어 적당하는 존재가 장승상부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숙향과 이선, 김전부부의 죄는 선명하고 강하게 드러난다면 장승상부인의 죄는 숙향을 변론해주는 것으로 그 죄가 다소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율법이 엄격한 천상계에선 남의 잘못을 대변하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 특히 장승상부인은 향아가 이미 숙향에게 벌을 내리려 하는데 향아를 받드는 선녀가 그것을 어긴 잘못도 있다. <숙향전>에서 천상계의 직제를 살펴보면 최상위는 상제이고 그 바로 밑의 직위는 월궁향아라 할 수 있다. 이때 향아가 맡은 일은 선녀들의 관리이며 천상계의 법제에 맞게 이들의 규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향아의 직무라고 볼 수 있다. 즉 향아는 상제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데 장승상부인은 향아가 결정한 사항을 거역하고 상제에게 숙향을 구해달라고 잘못을 대변한 것이다. 결국 이것이 죄가 되어 장승상 부인도 적당하게 된다.

일일른 부인 한 썸글 어드미 한 선네 구름 속으로 날려와 계화 한 가지를 주어 왈 그되는 전칭의 죄 중하야 자식을 못 보게 하여쓰니, 남의 계 애미히 잡혀 슬허하는 경상니 불상하기로 니 쫓출 주는 거시니, 잘 간슈하라 나중의 자년 알리라. (정문연A본, 19면.)

천상에서 숙향의 죄를 변론해주던 장승상부인은 지상에서도 여전히 숙향을 돕는 존재로 등장한다. 장승상부인은 부모를 잃고 거지처럼 유랑하는 숙향을 수양딸로 받아들여 양가집 규수처럼 번듯하게 길러낸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모두 천상계의 계획 하에 진행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은 숙향의 죄를 변론하여 적당한 장승상부인의 형벌이 무엇임을 알려주는 장면이자 숙향을 잘 양육할 것을 당부하는 대목이다. 천상계에서 맺어진 우호적인 관계를 지상으로까지 연결시켜 인연으로 맺어놓았음을 보여주는 장

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이 같은 관계는 사향의 모함에 의해서 금이 간다.

(ㄱ) 사향이란 종이 본디 승상덕 가중스를 담당하더니 숙향이 드러온 후로는 권를 아쥬 앓끼여는고로 너심의 앙양하여 죽니고자 하되 틈을 엿지 못하더니… (정문연A본, 21면.)

(ㄴ)이적의 사향니 후원의셔 잔치하물오 집니 뷔여시물 보고 크게 깃거 부인 침방의 즉시 드러가 부인의 납치 바드신 금봉척와 승상의 슈사하신 옥장도를 도적하여 숙향의 성적함의 너코 나와쓰니…

사향니 것티 셋사가 엿즈오되 요사히 숙향씨 슈도 노흐며 글도 지어 밧게 사람을 자로 쥬고 밧 사람도 규규히 출입하오니 그 뜻들 아지 못홀너이다. (정문연 A본, 22~ 24면.)

인용문(ㄱ)은 장승상택의 종 사향이 숙향을 시샘하여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다. 사향은 숙향이 장승상택에 거처하게 된 이후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하자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숙향에 대한 장승상부부의 신임도 날이 갈수록 커지자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진 사향은 숙향을 모함하게 된다. 장승상부인은 지상에서도 한결같이 숙향을 돕는 존재였지만 사향의 모함에 넘어가 수양딸로 오랫동안 신임했던 숙향을 도적질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뒤 늦게 숙향이 도적질 할리 없을 거라는 걸 깨닫고 숙향을 변호하지만 장승상부인의 오해는 이미 불신의 벽을 쌓아 숙향을 쫓아내는데 원인제공을 한 뒤다. 숙향을 쫓아낸 후 장승상부인은 이 때문에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하게 되지만 이는 장승상부인이 지상에서 감당해야할 임무이기도 하다. 장승상택을 쫓겨나야지만 숙향의 예정된 고난이 이어지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엷힌 관계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승상부인과 숙향의 관계도 천상죄로 인해 얽혀진 복잡한 사이이기에 이들의 관계는 지상에까지 이어져 자신들의 벌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숙향에 대한 장승상부인의 태도는 천상과 지상에서 모두 한결같다고 할 수 있다. 숙향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 벌을 받게 되고 다시 같은 상황이 지상에서 반복되지만 장승상부인이 숙향을 돕는 손길만은 여전하다. 사향의 모해로 숙향을 잠시 오해하게 되지만 오해가 풀린 뒤 숙향을 위해 제사를 치르는 등 숙향을 위하고 돕는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장승상부인은 자신의 천상죄에 대한 대가에 불임이라는 지상 벌을 받아 고난을 받지만 이를 극복하고 숙향에게 베품이라는 현실적 선을 통한 한층 성숙된 태도로 임한다는 점은 다른 인물들과는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승상덕에서 숙향이 모함으로 얻는 죄명이 도적질과 사통죄라는 것에 유념해야한다. 인용문(ㄴ)은 숙향이 금봉채와 옥장도를 도적질하였다는 것과 바깥사람과 사통하였다는 모해를 받는 장면이다. 사향은 이 두 가지로 숙향을 모해하는데 이는 천상에서 숙향이 저지른 죄와 같다.⁷⁴⁾ 이것은 숙향의 천상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천상죄와 유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련하므로 숙향의 죄가 그만큼 무거운 것임을 숙향 자신과 독자에게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때 모함을 한 사향을 벌하는 인물은 천상계에서 준비시킨 스님으로 사향에 대한 처벌은 즉각 이루어진다. 이는 숙향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숙영낭자전>의 숙영의 모해상황과는 구별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숙영은 시비 매월의

74) 경일남(앞의 책, 158쪽.)에서 숙향이 장승상 덕에서 도적질의 모함을 받게 된 것은 전생에 천상에서 도적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생에는 지상에서 영똥하게 죄 없이 도둑으로 몰려 죽음의 상황에 처하는 고난을 당하여 천상죄를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숙향에게 부과된 세 번째 죽을 액은 천상의 신물인 월연단을 훔친 전생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는 정화 차원의 고난으로 파악하였다.

모함을 받았을 때 자결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모함임이 밝혀져 매월과 돌쇠를 처단할 때도 처단자는 선군이였다.⁷⁵⁾ 이에 비해 〈숙향전〉은 사향을 처벌하는 이가 천상계의 대변자 스님이다.⁷⁶⁾ 이것은 〈숙향전〉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지상계의 인물까지도 천상계가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숙향전〉은 서사 전반에 걸쳐 적강구조가 치밀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5. 은닉자로서 구원에 따른 조력, 용녀

앞서 살펴본 적강한 인물들인 이선·김전·장승상부인은 숙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죄이기에 숙향과 1차적인 관계에 있다면 용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숙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김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존재이기에 숙향과 용녀의 관계는 이차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김전의 목숨과 숙향의 목숨, 그리고 이선의 구약여행까지 도와주는 용녀는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용녀나 거북의 모

75) 당초의 미월을 슈청을 삼아던이 낭즈 작비흔 후로 저을 복디혀던이 부명코 몹쓸 여이 시기혀여 낭즈을 모흐히미리르다 하고 즉시 노복으로 호령혀여 잡아너여 쫓이고, 엄치혀며 궁문 왈...

할입니 분흔물 이기지 못혀여 창두를 불너 세우고 돌쇠을 박살혀여 죽기고 할입니 찻던 칼을 썬여 들고 너여와 엇지 너 갖튼 연을 일곡인들 세상의 살여두리요 하며 미월의 비을 질너 헛치며, 상공을 도라보며 왈 이런 요망흔 연의 말을 듯고 빅옥 무죄흔 스람을 죽어스오니 니런 익달은 일니 어디 잇쓰올이가 히이 상공이 묵묵부답하고 눈물만 흘여이더라. (〈숙영낭자전〉, 320~322쪽.)

76) 나는 천승일너니 옥황상계계 명를 바다 왓스오니 승상딕의 옥석을 분별혀올 거시미 상하 노쇼 남녀를 다 너여 세우쇼셔 허거늘 ...네 간교흔 형적을 종시 감쵸고 익미흔 숙향을 악명을 짓게 하니 승상과 부인은 네게 쇼그런이와 허늘쵸츠 속으랴 하고 언필의 샴미 안호로서 쵸구만 슈리를 너여 공중의 더지고 그 우회 올라서이 문득 천지 진동혀며 하늘리 문허지는 듯 허더니 점점 천지 어두으며 큰 쇼낙기 박으로 다마 붓드시 오구 샤면 팔방의 모도 번기빚치 자옥허거늘 승상부처와 상하 노속 등니 혼비박산혀야 짜헤 업쓰여 축슈허더니 문득 공중의셔 동회갓튼 불덩니 날리 다르며 바로 사향의 티굴리를 썬치니... (정문연A본, 41~43면.)

습이지만 그 실체는 인간이 아닌 용이다.

용은 상상적인 동물로 일찍부터 인간에게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용에 대한 신앙은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왔으며 용에 대한 전설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는 용은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에 해당되는데 이 때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용은 생김새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방위를 기준으로 나뉘거나 (사해용왕), 혹은 강이나 동굴, 폭포 등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수신으로서의 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질적인 용의 모습보다는 인간형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용은 대부분 수궁계에 속한 용왕 족이며, 인간 앞에서는 대부분 인간형으로 변신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77)

(ㄱ) 잇쎌 속향은 아모란 줄 몰나 그 아희다려 문왈 저 처녀는 엇쎌 사람이완디
믈를 평지갓치 단이논고 옥네답왈 그는 동희 용왕의 세직 딸이오 포진 용왕의
부인이니 부인의 부친 은혜를 입어 살아났기로 이제 와 부인을 구호고 가너이다.
(정문연A본, 34~35면.)

(ㄴ)우리는 월궁향아의 명를 bat츠와 부인을 구호라 오다가 옥하슈의셔 녀동빈 선
싱를 만나오니 술를 너라 호고 잡고 노치 안니호시미 진시 오지 못호여삼쎌니
용여 곳 안이런들 하마 구치 못홀 번호여이다 호며 쏘 용너게 샐레 왈 엇지 밋
쳐 와 구호신잇가. (정문연A본, 33면.)

(ㄷ)봉네 쏘호 빈샤 왈 옛날의 샐히 용왕니 슈정궁의 모다 잔치호올제, 너 사랑

77) 고전소설에서의 용은 자연스럽게 한 세계를 다스리는 군주로 형상화되는데 이에 따라 용왕 족이 여러 고전소설에 보다 활발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용왕을 위시하여 용자, 용녀, 용왕비가 존재하며 기타 어족들은 용 왕족을 받드는 신하로서 체계화·계급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환상계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05, 148~149쪽 인용.)

흐는 시네 유리병을 썬어거늘, 흥혀 췌 입을가 흐여 감초고 즉시 고치 안니타 흐고, 용왕니 노흐야 첩를 반하물그의 너치거늘, 물가의 느왔더니 어부의 그물을 걸여 거의 죽게 되엇더니, 천형을 입샤와 김상셔 은덕으로 샤라나니, 그 은혜를 갑고자 흐되 길힐 못 어덧씨니 … (정문연A본, 33~34면.)

김전이 구해줄 땐 거북이의 모습이었던 용녀는 숙향에게는 인간형상으로 나타난다. 인용문(ㄱ)은 용녀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 하는 숙향에게 선녀가 용녀의 신분이 동해용왕의 셋째 딸이자 포진용왕의 부인이라고 알려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용녀의 신분이 포진용왕의 부인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포진강은 숙향이 장승상택을 나와 투신하는 곳으로 이 포진강에서 용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항아는 숙향이 포진강에 빠질 것을 대비 선녀들을 준비시킨다. 하지만 선녀들은 숙향을 구하러 오던 중 여동빈을 만나 술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 때맞춰 숙향을 구하러 오지 못한다. (ㄴ)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속히 목숨을 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술 때문에 실랑이를 벌리다 늦어졌다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용녀와 숙향을 연결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녀의 행보를 지연시켜 아버지를 구해준 용녀인, 즉 포진용왕의 부인인 용녀가 포진강에 빠진 숙향을 때맞춰 구해낼 수 있게끔 유도한 장치로 보아야 한다.

(ㄴ)은 용녀가 시녀의 죄를 아뢰지 않은 죄로 용왕에 의해 벌을 받아 반하물가로 쫓겨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장승상부인처럼 다른 이의 죄를 감싸주다가 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죽을 위기에 처한 용녀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가 바로 김전이다. (ㄷ)은 김전의 은덕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용녀가 숙향에게 알려주는

장면이다. 용녀는 목숨을 살려준 김전에 대한 보은으로 김전의 목숨과 숙향의 목숨까지 구해낸다.

김전뿐만 아니라 숙향의 목숨까지 구해내는 용녀는 보은과 인연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숙향전〉에선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숙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녀까지도 숙향을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용녀는 김전을 구한 후에는 구슬을 토해내 이 구슬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것을 해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 구슬은 김전의 납채 예물로 사용되고 이선과 숙향의 가연을 맺는데도 주요한 단서로 제공되며 황후의 목숨을 구하는데도 사용된다. 김전과 용녀의 인연이 숙향을 돕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장되어 이선의 구약여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숙향 · 이선 · 김전을 돕는 것은 용녀뿐만이 아니다. 용녀의 아버지 용왕은 김전에게 모든 형벌을 끝낸 숙향과의 만남을 대비해 숙향의 지나온 일들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남해용왕과 조카인 용자는 이선의 구약여행 시 앞일에 대한 예언과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각각 한다. 이처럼 용녀의 아버지인 용왕, 남매지간인 남해용왕과 조카인 용자까지 등장하는 것은 〈숙향전〉의 작가가 인연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용녀가 숙향 · 이선 · 김전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처럼 〈유문성전〉에서도 용왕이 유문성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유문성이 용왕으로부터 용궁소유인 용마와 명검을 공급 받기 때문이다.⁷⁸⁾ 이러한 일은 유문성이 전

78) 선동이 되왕 소동은 연화강 용왕의 아달이라 상제의 명을 받아 슈궁용마를 너여다가 여람짜 유문성을 쥬라 흐시미 기다린지 슈월이라 맞참 붓친씩읍서 구경츠로 갓여다가귀인을 보시고 도라와 직촉 흐시기로 왓삽더니 용마 먼저 입자를 알고 이곳으로 인도흐와 귀인을 뵈오니 쏘한 텃명이로다 유생이 이 말을 듯고 디경디회흐야 사례왈 천생은 인간빅면 서생이라 우미한 눈이 룡왕을 뵈와도 이지 못흐얏사오니 도르혀 황공흐여이다...유생이 두 번 절흐고 사례 왈 이런 용총을 주시니 감사흐여이다 룡자 쏘 청룡초운갑과 칠성대검을 쥬며 왈 이 갑쥬와 칠성검은 즉 룡궁소작이라... 〈유문성전〉,

쟁터에 나가 영웅성을 발휘하기 위한 예비단계인 능력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숙향전>에서 용녀의 도움이 수차례 계속된다면 <유문성전>에서는 일회성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숙향전>에는 천상개입이 서사의 모든 상황에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관 <심청전>에서도 심청이 용왕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을 때 동해용왕이 시녀를 시켜 구해낸다. 심청의 목숨을 구한 동해용왕은 심청의 지상고난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지상복록도 함께 알려주는데 이 동해용왕은 전생 심청의 부친이다. 심청의 전생이 동해용녀인 것⁷⁹⁾이다. 경관 <심청전>은 <숙향전>과 마찬가지로 적강의 개입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작품이기에 주인공 심청의 지상 삶은 천상과 유기적인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용녀는 자신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김전이 구해주어 은혜를 입게 되자 김전·숙향·이선에게 차례차례 보은을 한다. 김전과 맺어진 인연이 숙향·이선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작은 인연까지 소중히 여겨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숙향전>의 등장인물들의 관계망 속에서 죄와 형벌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숙향전>의 서사는 주인공과 그 밖의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천상계와 연관되어 지상에서도 빈틈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천상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323쪽.

79) 용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금방울전>에서도 확인된다. <금방울전>의 주인공 금방울은 죽은 용녀가 환생하여 금방울로 태어난 존재이다. 금방울이 온갖 고난을 겪는 과정과 해룡과 결연을 맺게 되고 지상복록을 누리다 하늘로 승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 <금방울전>으로, 용녀는 서사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된다. 주인공을 돕는 존재로 등장하던 용녀가 그 위치가 점차 강화되어 작품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기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천상계의 철저한 개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적장의 정형적 구조인 순환 체계가 〈숙향전〉에선 주인공과 그 밖에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인과적으로 치밀하게 구현되었던 것이다. 특히 작가는 〈숙향전〉의 주인공 숙향을 중심 축으로 이선, 김전부부, 장승상부인, 용녀를 각각 배치하여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죄와 벌의 관점으로 서사를 진행시킨다. 또한 죄와 형벌의 방식을 다루는데 있어 작가는 각 인물별 죄의 경중과 벌의 해결방식도 저마다 다르게 적용시킨다. 천상죄의 가해자인 숙향에게는 그 죄가 가장 무겁기에 그에 합당한 벌로써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다섯 가지 고난을 치르게 하며 그 과정을 통해 피해자였던 상대방에게 속죄하는 계기를 마련시킨다. 숙향에게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이선에게는 그 벌로 숙향의 고난여정에 대한 답습과 황후의 약을 구하는 구약여정을 겪게 하여 상대방, 즉 숙향과 설중매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장만한다. 천상에선 피해자였지만 지상에선 가해자가 되기도 한 김전부부에게는 자식을 잃는 고통의 형벌을 치르는 동시에 숙향의 지상고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동시에 겪게 만든다. 이렇게 이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부과된 현실적 고난을 통해 천상죄를 씻어나가게 되며 상대방과의 화해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숙향과 이선·김전부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천상죄로 인한 벌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면 장승상부인과 용녀의 천상 죄에 대한 벌의 양상은 이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장승상 부인은 천상죄로 인해 불임이라는 벌을, 용녀는 어부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는 벌을 각각 받게 되므로 이들 역시 지상에서 현실적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들의 벌은 단순히 자신들의 고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신들의 천상죄를 그에 합당한 벌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숙향과 이선)에게 선을 실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숙향과 이선·김전부부는 벌이라는 현실적 고난을 통해 천상 죄를 해결하였다면,

장승상부인과 용녀는 타인에게 현실적 선을 베푸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나아갔기에 자신들의 천상 죄에 대한 벌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숙향전〉에서는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숙향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구조하는 천상계의 존재들인 후토부인과 선녀, 화덕진군 같은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들도 철저하게 죄와 벌에 관여된 인물들이다. 순수하게 천상적 존재인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숙향이 죽을 위기에 빠질 때마다 천상에서 내려와 도움을 주어 상황을 모면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의 도움은 숙향이 천상적 존재로서 궁극적으로는 천상복귀를 이뤄내는데 필요한 도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숙향을 위한 일방적인 구조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들의 도움은 일시적인 구출로, 즉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숙향이 천상죄에 대한 벌을 다 받게 하려면 중도에 죽어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천상적 존재들은 숙향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구조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숙향전〉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죄와 벌이라는 적장의 틀 속에서 구현해 내고자 한 것일까? 그리고 인물별 죄에 대한 해결방식도 각각 다르게 적용시켰을까? 이는 당대인들의 사고관념, 즉 작품속의 인물들과 작품을 접하는 대중들의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숙향전〉의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죄와 벌을 대하는 태도는 그 경중에 상관없이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현세의 일, 즉 고난과 벌이 자신들의 천상죄업 때문임을 숙지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Ⅱ장에서 살펴본 왔던 〈숙영낭자전〉의 인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숙영과 선군은 천상에서 3년으로 정해놓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자숙이라는 벌을 자신들 스스

로 파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은 당대인들의 중세의 사고방식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숙향전>의 등장인물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믿고 있었기에 죄에서 벗어나려거나 반항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천상 업 때문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숙영낭자전>의 인물들은 더 이상 천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천정원리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숙향전>은 천상죄와 지상벌이라는 적강의 틀에 기대어 문학적 장치로 풀어낸 작품이며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믿던 당시의 사고관념이 대중들에게도 관통하고 있었기에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천상세계를 믿으며 자신의 고단한 현세는 전생의 업과 관련 있다고 믿는 인간 원죄의식에 기대어 작가는 <숙향전>을 창작하였던 것이다. 천상죄인이었던 작중인물들이 현세의 벌을 감내하는 과정은 인간 삶의 여정 속에 맞닥뜨리는 고난이기도 하기에 이들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은 대중들의 마음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숙향전>의 작가가 등장인물들 간의 천상에서부터 얽힌 관계를 지상으로까지 재현하여 죄와 벌로 서사를 풀어낸 것은 작가의 창작 의도에 의한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는 <숙향전>의 인물들 각자가 지은 천상 업으로 인한 죄의 형벌을 지상에서 치르는 동안 그들 사이에 얽힌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게끔 만들어 나간다. 죄와 벌도 각각 다르게 적용시켜 타인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기도하고, 가해자 · 피해자 · 원인제공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반목과 대립적 상황을 만들어냈던 관계들을 지상형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이전의 갈등이 해소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물들 간의 관계망을 통해 ‘소통의 원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천상의 업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를 겪었던 관계가 지상 죄업을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숙향전>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천상죄업에 대한 죄 값을 천상계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치러 내게 되자 현세에서 막혔던 고단했던 삶은 그들이 소망하던 조화롭고 안정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IV. 죄와 벌의 관계에서 배제된 등장인물의 서사적 의미

〈숙향전〉의 등장인물 중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인물은 설중매와 마고할미이다. 이들도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지만 설중매와 마고할미, 두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Ⅲ장에서 살펴본 인물들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앞서 살핀 Ⅲ장의 인물들은 모두 죄와 벌의 관계로 얽혀있다면 설중매와 마고할미는 그렇지 않다. 설중매와 마고할미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즉 설중매는 자발적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고 마고할미는 온전히 숙향을 돕기 위해 내려와 이전에 살펴본 인물들과는 차이점을 보이기에 이들이 〈숙향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숙향전〉의 기존 논의에서 설중매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존재였다. 설중매는 〈숙향전〉 후반부에서 등장하고 서사의 내용상 차지하는 비율도 비교적 적어서 얼핏 보면 〈숙향전〉에서 설중매의 역할은 다소 미비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주요한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중매는 주인공 숙향의 천상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이면서 최종적으로 김전부부와 함께 천상복귀를 이루는 존재이기에 〈숙향전〉에서 그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고할미 또한 〈숙향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고할미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맺음에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며 〈숙향전〉에서 각 등장인물들이 죄와 형벌을 치루는 데 있어 그 형벌을 끝내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인물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계의 역전과 애정회복, 설중매

〈숙향전〉에서 설중매는 독특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설중매는 다른 인물들, 숙향·이선·김전부부·장승상부인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의 존재이지만 이들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면 설중매는 지상으로 죄 없이 순수하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설중매는 〈숙향전〉에서 서사의 후반부쯤 등장하게 되며 이때 고전소설에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킬 때 주로 사용되는 장치인 부모에 대한 간략한 이력, 인물의 태몽에 관련된 사항들인 기본정보들이 먼저 소개된다. 서사 후반부에서 등장하는 설중매는 〈숙향전〉 전체 서사를 놓고 볼 때 그 영향력은 극히 미비해 보이기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중매가 〈숙향전〉에서 시사하는 바는 결코 미비하지 않다.

이 아기 슈티홀 제 양왕의 꿈의 일위 노인니 일으되 봉늬산 설중매 그디 집이 썩러지니 외얏남게 접흐면 가지 번성흐리라 흐더니 과년 그달부터 티고 잇서 십삭 만의 일기 옥녀를 탄싱하니 얼골리 일월갓고 쇼티 낭낭흐더라 점점 자라미 일흠을 미향이라 흐고 차는 설중매라 흐다. (정문연A본, 164면.)

천상에서 설중매였던 매향은 지상에선 황제의 셋째 아우인 양왕의 딸로 태어난다. 위의 인용문은 한 노인이 양왕의 꿈에 나타나 천상의 봉래산 설중매가 양왕의 집에 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장면이다. 태몽을 통해 양왕의 딸로 태어나는 매향이 봉래산의 설중매였다는 사실은 알려지지만 이선과 전생 인연이 밝혀지는 시점은 이선의 구약여행중이다. 그리고 천상에서 부부사이었던 설중매와 이선이 지상에서 다시 인연이 맺어지는 것은 설중매가 결혼 적령기가 되어 혼처를 구하면서 부터다.

고전소설에서는 남녀주인공의 결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늑혼모티프라 할 수 있다. 주인공보다 신분이 높은 존재인 왕이나 그 인척이 남녀주인공의 애정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장치가 늑혼이다. 즉 결연에 대한 주인공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며 주인공들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장치로 빈번히 나타나는 게 늑혼이다. <숙향전>에선 황제의 셋째아우인 양왕의 딸 설중매가 결연을 극구 거부하는 이선과 결사적으로 맺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높은 지위를 이용한 주인공의 애정방해를 위한 늑혼처럼 보인다. 그러나 <숙향전>의 설중매와 이선의 상황은 일반적인 늑혼의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세 왈 올치 안인 줄은 아오되 어전의셔 혼인을 정흐시면 마지 못흐여 두 부인를 둘 거시니 그 덕 일정 슬허흐실 거시며 그덕을 위흐야 부인를 쇼흐면 저는 양왕의 딸니오 황제 정흐신 비필이온이 일정 세력으로 가너 불평홀 들 호오니 처음의 거절흐만 갖지 못흐외다 부인 왈 그러치 안이호이니다 양왕니 당초의 상셔 부귀호 일니 안이오라 상세 선비 시절의 부친게 허락바다 계신티 상세 부모 모로게 첩를 취흐니...(정문연A본, 167면.)

위의 인용문은 이선이 설중매와의 혼사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자 숙향이 양왕의 구혼이 늑혼이 아님을 밝히는 대목이다. 설중매의 아버지 양왕은 이선이 벼슬에 오르기 전 선비일 때 이선의 부친에게 이미 구혼한 상태였기에 이는 늑혼이라 할 수 없다. 양왕은 설중매의 혼처를 구하던 중 이선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구혼을 청했으며 양 부친에 의해 이들 혼약이 맺어진 것이다. 그러나 부친 몰래 숙향과 가연을 맺은 이선이 설중매와의 혼인을 극력반대하자 양왕의 구혼은 무산될 지경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선

이 아니면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겠다'는 설중매의 고집에 꺾여 양왕은 형인 황제에게 이선과의 결연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늑혼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숙향의 절행을 알고 정렬부인에 봉한 적이 있는 황제는 양왕의 편만 우선적으로 들지 않는다. 또한 설중매는 숙향의 방해로 이선과 천상 인연을 다 이어가지 못한 채 이선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온 이선의 천상계의 부인이었다. 숙향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인물은 설중매인 것이다. 결국 설중매와 이선의 인연 또한 천상계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늑혼모티프는 남자 주인공의 영웅성을 입증할 때 대부분 적용되는 서사 틀이다. 예를 들어 <백학선전> 과 <유문성전> 에서 보이는 혼사장애 역시 늑혼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백학선전> 에서는 임금의 총애가 뛰어난 최국량이 자신의 아들과 여주인공 은하를 결혼시키려한다. 그러나 은하가 백로와의 연분 때문에 허혼하지 않자 최국량은 앙심을 품고 은하와 그 가족까지 죽이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약혼자인 유백로도 전쟁터로 보내 죽이려 한다. 자신의 권세를 악용하여 혼사장애를 일으키는 최국량의 횡포로 늑혼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유문성전> 에서는 두 번의 늑혼의 양상이 나타난다. 황제가 여주인공 이소저를 후궁으로 삼고자 청혼 한 것과 승상 달목이 자신의 아들과 이소저를 결혼시키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황제의 청혼에 이소저의 아버지는 부당하다며 따르지 않자 투옥되는데 다행히 황제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어 늑혼횡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 늑혼횡포는 달목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높은 지위를 이용해 이소저의 천정연분인 유문성을 죽이려하고 이소저 부친에게 혼사를 강요하여 이소저가 자결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만든다. 이처럼 <유문성전> 에서 늑혼은 주인공의 결연을 방해하기 위한 요소로 적극 사용

된다.⁸⁰⁾ 이에 반해 <숙향전>에서의 두 번째의 혼인과 관계된 일련의 상황들은 이선과 설중매의 전생인연을 다시 맺어주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차적으로 볼 때는 혼사장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이선과 설중매가 천상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설중매는 등장인물 중 가장 기구한 숙명의 소유자이자 피해자다. 숙향이 이선을 먼저 희롱해 유혹하기까지는 사랑하는 남편과 단란한 가정에서 별 걱정 없이 지냈을 터인데 숙향의 개입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기 때문이다. 남편인 이선도 숙향을 만난 이후로는 숙향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숙향 때문에 함께 적당하고 만다.

(ㄱ) 왕왕 왕의 딸니 상셔의 들지 부인 되기는 남이 붓그러오니 엇지허리오 미향니 같오되 니선의 첩도 되지 말고 그 집 좋니 되어도 붓그럽지 안니허련니와 다른 가문의 가면 남의게만 붓그럽지 안야 소녀의 므음니 붓그러올 거시니 엇지 남의 직쳐 되물 한탄허리잇가. (정문연A본, 165면.)

(ㄴ) 설중매는 그되 인간의 날려그미 보려호고 자슈호야 약슈의 싸져 죽으니 후싱의 귀히 되게 호야 양왕의 딸리 되엇는디라 상셔 왈 그리면 설중매 너 부인니 먼저 될 거시어늘 엇지 쇼애 먼저 되엇는고 선관 왈 그되 인간의 날려가문 쇼애를 위호야 날려갓실 썬 안니라 쇼애는 월궁항아의 아니라 항애 비록 무이 녀여

80) <유문성전>의 군담은 주원장의 역성혁명과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유문성전의 후반부에 설정된 역성혁명 모티프는 전반부에 설정된 혼사장애의 성격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닌다. 즉 유문성과 이소저의 결합을 가로막는 혼사장애는 두 번에 걸친 늑혼인데 그 늑혼은 모두 명분론적 의리를 무시하는 황제의 권력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결합을 가로막는 황제의 부당한 권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의 결합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이 두 남녀의 결합을 위해 필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적 필연성에 부응하여 늑혼과 관련지어 역성혁명 모티프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일용, 「전기적 애정 모티프의 영웅 소설적 형상화 방식연구」, 『인문과학』 13,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인간의 보늬여시나 엇지 도라보지 안이리요 쇼아는 첫 부인니 되어짜가 나히 칠 십니 츠면 그딕로 더부러 혼가지로 도로 천산의 올나올리나. (정문연A본, 195면.)

천상에서도 설중매를 소홀이 대했던 이선은 지상에서도 설중매의 존재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황제까지 동원되어 설중매와의 혼인을 독려하지만 이선은 극구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설중매는 이선만을 바란다. (ㄱ)은 이선과의 결연을 간절히 바라는 설중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중매는 부친 양왕이 왕의 딸이 어찌 상서의 둘째부인이 될 수 있냐는 말에 설중매는 이선의 첩이 아니라 종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다며 이선과 결연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설중매는 자신의 애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든 거리낌이 없다. 천상에서 이선이 숙향과 함께 적강하게 되었을 때도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약수에 빠지기 때문이다. (ㄴ)은 설중매가 이선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그려진 대목이다. 설중매는 약수에 빠져 지상으로 내려오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과는 다른 적강양상을 보인다. 즉 천상죄 때문에 지상으로 적강하는 것이 아닌 약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므로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다. 이처럼 설중매는 죄 없이 지상으로 내려왔기에 양왕의 딸로 점지되어 지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설중매는 안락한 삶보다는 이선과의 애정만을 간절히 원했고, 이선의 구약여행을 통해 설중매와의 천상인연이 밝혀지자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대로 이선과 결연하게 된다. 즉 설중매는 타인 및 타의에 의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림의 자세로만 일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천상에서 본부인이었던 설중매가 둘째부인이 된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상에서는 숙향이 이선의 본부인이 되고 설중매는 둘째부인이 되기에 이들의 천상에서의 원위치가 그대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김전부부와 숙향의 관계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숙향과 김전부부는 천상에서 원망하던 처지가 지상에서 부모자식으로 엮였는데 이 같은 상황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상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상대방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고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살펴야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주로 자신의 이해관계만 먼저 생각하게 되기에 갈등이 생기고 그에 따른 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망에 주목하여 작가는 〈숙향전〉의 인물들의 관계망도 엮어냈다고 볼 수 있다. 즉 작가는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설중매와 숙향의 위치를 천상과 지상에서 각각 뒤바꿔놓은 것이다. 이는 역전된 상황을 만듦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돕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김전부처는 초왕부부를 일코 밭일 슬허 정숙왕비로 더브러 비를 타고 선유허 더니 한 선관이 굴갓튼 거슬 세홀 쥬더니 문득 일오되 설중미화 한나식 먹으로 흐거늘 바드니 그 선관 왈 천상 일을 인간의 와서 이저는냐 흐거늘 혼나식 먹으니 쏘흔 인간 일은 아쵸 잇고 몸이 쏘흔 가뵈야와 다시 집으로 갈 마음을 이저 브리고 가속도 다시 보지 못흐고 봉내산으로 가니라. (정문연A본, 211면.)

위의 인용문은 설중매와 김전부부의 천상복귀 장면이다. 구약여행을 다녀온 이선과 혼인한 설중매는 지상복록이 끝난 뒤 천상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복귀하는 인물은 천상계의 부모였던 김전부부다. 이 또한 작가의 세밀함이 돋보이는 장면으로 작가는 천상의 부모자식이었던 설중매와 김전부부가 함께 천상복귀를 이루는 것으로 서사를 갈무리 짓는다. 천상계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일들이 지상에서의 뒤바뀐 상황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원만한 해결을 보이자 최종적으로 원래의 부모자식 관계였던 설

중매와 김전부부를 짝 지워 천상복귀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 대목은 끝까지 철저히 작품에서 적당구조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베품과 타인을 위한 삶, 마고할미

〈숙향전〉에서 마고할미⁸¹⁾는 적당한 인물들인 천상인과 구별되는 존재다. 마고할미는 천상에서 죄 없이 순수하게 내려오는데 이점은 앞서 살펴본 설중매와 같다. 그런데 설중매가 자신의 상실된 애정을 되찾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면 마고할미가 하강한 이유는 전적으로 숙향과 관련 있다. 마고할미가 지상으로 내려온 이유는 전폭적으로 숙향을 돕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이 도움의 손길은 마고할미가 천상으로 복귀 한 후에도 계속된다.

숙향이 혼자 울며 동다히 길노 가더니 날리 임의 발그터 감히 벗고 갈 길도 없고 쏘 곁하야 발도 압푸고 비도 곱푸니 혈 일 업시 길가의 나무 불 미티 드러가 화덕진군 쥬든 옷자락으로 압만 가리오고 안즈씨니 문득 흔 늘근 할미 티광 쥬리를 엽헤 끼고 지나다가 숙향의 것티 안즈며 왈 엿씨흔 아희완티 크다흔 거시 벌거벗고 길가의 안즈 우는다 부모의게 득쾌하고 좃치여 나와는다 남의 것도적ㅎ다가 도쥬히여 왔는다. (정문연A본, 47~48면.)

81) 마고할미는 마고선녀인데 주로 노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여선들이 대부분 아름다운 미인으로 형상화되는 것에 비해 유독 마고선녀만은 약초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있는 노파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마고선녀가 노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연유는 신화시대 마고할미의 모습과 습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고할미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리를 놓아주거나 풍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신 노파로 나타나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신화시대 거신의 면모와 중국의 전설상의 선녀인 마고선녀의 형상이 습합되면서 걸모습은 인자한 노파의 모습으로, 역할은 선계의 약을 캐는 선녀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재현, 앞의 논문 127~128쪽.)

위의 인용문은 숙향과 마고할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이들의 만남은 숙향이 갈대숲 화재를 벗어난 뒤 이루어진다. 굶주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갈 곳 몰라 하던 숙향 앞에 마고할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숙향 앞에 대광주리를 옆에 끼고 나타난 마고할미는 천상의 존재로 숙향이 그간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마고할미는 네 번의 죽을 액을 겪고 몸도 마음도 지친 숙향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심신의 안정도 제공해 준다. 즉 숙향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존재이기에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요소다.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어야 사람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숙향이 네 가지 벌을 받는 동안의 기간은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위협받는 생활이었다. 잠을 잘 곳이 없어 길가 아무 곳에서 자는 것은 예사였으며 끝내는 입고 있던 옷까지 화재로 인해 벌거벗겨졌으며 늘 굶주렸기에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허기를 채울 수 없었다. 그런 숙향에게 구원의 존재 마고할미가 나타난 것이다.

한미 왈 나는 과년 천탄산 마구선네로 월궁항아의 명를 바다 낭즈를 구하려 인간의 내려왔습더니 저적의 낭직 요지연의 갓실 제도 너 청죄되어 인도항야 다려가고 낭군 오실제도 너 삼신산 선관을 모도 청항야 위유항고 낙양 옥중의 갖쳐 잇실 제도 너 청죄 되어 낭즈의 서찰를 니랑게 전항고 낭즈의 온갖 일을 돌보더니... (정문연A본, 103~104면.)

위의 인용문은 마고할미가 이별을 앞두고 자신이 그간 숙향을 위해 했던 일에 관해 알려주는 대목이다. 월궁항아의 명이긴 했지만 마고할미는 숙향에게 끝없는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존재다. 위기상황마다 숙향을 도와주는 것

은 물론 천상의 인연인 이선과 결연을 맺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까지 모두 마고할미의 도움으로 진행된다. 천상 요지연에서 꿈으로 본 광경을 수를 놓게 하여 이선의 눈에 띄게 하는 점, 숙향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선의 애정을 테스트하는 점, 혼례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집전하는 점 등 마고할미가 숙향을 돕는 손길은 매우 세밀하며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마고할미는 미천한 신분 때문에 숙향과의 결연을 극력 반대하는 이상서와 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써 돕기까지 한다. 자신의 무덤을 이상서 덕 동산에 묻게 하여 혼자 남겨진 숙향을 상서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마고할미가 숙향을 돕는 손길은 천상으로 복귀하고서도 한결같다. 황후의 구약에 필요한 약중 하나인 벽이용을 이선에게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마고할미는 얽힌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존재, 즉 어머니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고할미가 머무는 공간이 이화정도 눈여겨보아야 할 공간이다. 외관상 이화정은 술집이고 마을사람들의 출입이 있는 곳이지만 일반적인 주막과는 다른 점이 많다. 술집주인인 마고할미는 천상계의 존재이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청삽사리도 있으며 범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화정은 지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진기한 그릇과, 맛볼 수 없는 신비한 음식은 예사고 이선과 숙향이 가연을 맺을 때 천상계의 존재들도 대거 참여하는 공간이다. 이화정은 이처럼 지상공간의 특징과 천상공간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⁸²⁾ <숙향전>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인물이 구분 없이 섞이는 것처럼

82) 심치열은(앞의 논문, 250쪽.) 마고할미가 이선을 대접하기 위해 내놓은 음식이 모두 천상계의 음식인 것을 예로 들면서 지상계와 천상계가 동일선상의 공간에 그대로 수용된 것은 인간의 잣대에 따른 공간을 과감히 해체시켜 독자와의 친연성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당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신비스런 설정에 도취되어 대리만족에 의한 체험이 가능하리라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한길연은(앞의 논문, 340쪽.) 이화정을 일상계에 있는 초월계이자 또 다른 초월계로의 소통을 담보하는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 즉 이화정이 초월계와 일상계의 문지방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기

장소까지 천상계와 지상계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화정은 꿈을 통해서이지만 이선과의 만남을 최초로 갖게 되는 곳이자 결연을 성취하는 공간이다. 이화정은 천상과 지상의 중간 매개체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다. 이선은 대성사에 가서야 꿈을 통해 천생배필인 숙향의 존재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었듯이 숙향도 이화정에 거처를 정하고 나서야 이선과의 만남을 이루게 된다. 대성사가 삶에 억눌린 중생들이 소원을 빌고 부처의 자비와 보호를 바라는 의지처 이듯 이화정은 숙향에게 삶의 의지처가 되는 곳이다. 또한 이화정은 숙향을 시댁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시키는 공간이기도하다. 이로 볼 때 이화정은 숙향에게 안정을 찾아주고 숙향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고할미와 함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존재는 향이다. 마고할미만큼 문면으로 드러나 숙향을 돕지는 않지만 숙향을 도와주는 존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가 향⁸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월궁향아의 명를 밧즈와 부인를 구흐라 오다가 …(정문연A본, 33면.)
 오직 샤양니는 부인 모함흔 꾀를 향애 알르시고 상제게 엇즈와 별악을 지게 하여시니… (정문연A본,36면.)
 향애 옥황게 엇즈오되 쇼애 네 번 죽을 익을 지너와스오니 그만 흐읍서 복녹를 정흐쇼셔. (정문연A본,54면.)
 한미 왈 나는 과년 천티산 마구션네로 월궁향아의 명를 바다 낭즈를 구흐려 인간의 내려왓습셔니… (정문연A본,103면.)

점으로 일상계와 초월계의 소통이 펼쳐진다고 하였다.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전화선을 타고 가상현실에서 현실로 이동하였듯이 〈숙향전〉은 이화정을 거점으로 일상계에서 초월계로 이동한다고 본 것이다.

83) 성현경(앞의 논문, 265쪽.)은 향이는 선계의 마고할미를 속계로 보내 마고로 하여금 소아와 태을, 즉 숙향과 선의 사랑을 성취토록 끝까지 원격 조정한다고 보았다.

위의 각 인용문은 숙향이 포진강에 빠졌을 때 선녀를 보내주고, 사향을 처벌하기 위해 상제에게 알려 벼락을 치게 하고, 숙향의 복록을 점지하며, 숙향을 돕기 위해 마고할미를 보낸 것이 모두 월궁항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다. 항아는 숙향이 천상계에서 잘못을 저질러 벌을 주긴 하였지만 지상에 내려 보낸 뒤 어머니가 자식을 챙기듯 살뜰하게 숙향을 챙긴다. 항아는 공평하고 엄정하면서 또한 자애로운 성품이라 할 수 있다. 즉 엄격하지만 동시에 자애로움을 갖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숙향전>에선 어린나이에 친모와 생이별을 한 숙향에게 장승상부인, 마고할미, 항아가 각각 어머니 역할을 대신한다. 이들은 숙향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염원이 간절 한 숙향에게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다.

숙향은 다섯 가지 형벌을 수행하는 동안 그녀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와 도움을 주는 존재를 만난다. 그녀를 죽을 위기에 몰아넣는 존재는 반야산의 도적들과 승상택의 사향과 아버지 김전, 시아버지 이상서라 할 수 있다. 도움을 주는 존재는 명사계의 후토부인, 승상택의 장승상부인, 포진강 선녀, 용녀, 갈대밭 화덕진군, 이화정의 마고할미인데 이 도움을 주는 존재는 또들로 나눌 수 있다.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인물과 천상에서의 엷힌 관계로 도움을 주는 존재인데 마고할미와 후토부인·화덕진군은 후자에 해당되고 특히 마고할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처럼 아무 조건 없이 숙향에게 끝 없이 베푸는 존재다. 마고할미는 조건 없는 베품을 통해 숙향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종용하는 존재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숙향은 이전의 고난을 당했던 지역에서의 숙향과 그곳을 재방문하고 돌아올 때의 숙향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신세한탄하며 죽으려고만 했던 나약한 숙향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과 화해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 변화의 지점에 마고할미가 위치한다. 마고할미의 존재는 죄와 형벌에 있어서 인간세상에서 형벌을 끝내는 지점이며 그 징표로 존재한다. 속향은 마고할미를 만나고 이화정에 머물게 되면서 이선과 결연하게 되고, 형벌과 고난은 끝을 맺고 보은의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V. 결론

〈숙향전〉은 창작시기를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지만 17세기 말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전소설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숙향전〉은 숙향과 이선, 그 밖의 등장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한 지상에서 겪게 되는 형벌과 속죄가 첨예하게 얽혀서 핵심적 구조를 이룬다. 즉 적강구조가 작품 곳곳에 온전히 실현되어 이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여타의 적강형 소설과 구별되는 〈숙향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숙향전〉의 특이점에 주목해 각 인물별 적강 형상을 면밀히 살폈으며 또한 〈숙향전〉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적강형 소설인 타 작품과는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지 〈숙향전〉과 유사한 적강형 소설들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Ⅱ장에서는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적강모티프가 구체적으로 다른 적강형소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작품인, 〈백학선전〉, 〈김희경전〉, 〈유문성전〉, 경관 〈심청전〉, 〈숙영낭자전〉을 선정해 그 구현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적강형 소설은 적강모티프를 수용하되 전반적으로 서사전개의 중심에서 어떤 점을 더 부각시켰느냐에 따라 적강담, 애정담, 군담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즉 적강이 중심이 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적강담으로는 서사전반에 걸쳐 천상계의 개입이 강하게 드러난 〈숙향전〉과 경관 〈심청전〉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 반면 〈숙향전〉, 경관 〈심청전〉과 달리 〈숙영낭자전〉에선 적강이 미비하게 나타났다. 〈숙영낭자전〉에선 천상계의 개입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지상계의 연관관계도 미약하

게 나타났는데 이는 적강이 주인공의 애정성취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백학선전〉도 〈숙영낭자전〉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애정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적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문성전〉과 〈김희경전〉에서는 주인공의 애정성취뿐만 아니라 적강을 주인공의 영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숙향전〉에 나타나는 적강형태를 각 인물별 죄와 형벌의 방식에 맞춰 주인공 숙향과 이선,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세밀하게 고찰하였다. 각각의 인물들의 죄와 형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하여 이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귀결되는지 그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핀 것이다. 그 결과 〈숙향전〉은 여타의 적강형 소설과는 다르게 남녀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다수 등장인물까지 적강의 틀이 온전히 실현된 작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숙향전〉 등장인물들의 지상에서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천상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천상계의 개입 또한 매 사건마다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강구조가 작품 전반에 걸쳐 첨예하게 적용된 것이다. 또한 적강구조를 이용해 천상에서 엮힌 인물들의 관계가 지상에서는 그 반대로 엮이거나, 혹은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만들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장만해주었다. 그 결과 등장인물들이 천상 죄에 대한 형벌을 끝낼 때쯤에는 그들의 엮힌 관계도 해소되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숙향전〉에서 독특한 기능을 보여주는 두 인물, 설중매와 마고할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 살핀 주인공과 주변인물 대다수가 죄와 형벌이 적용되는데 반해 설중매와 마고할미는 죄 없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어 이들이 〈숙향전〉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숙향전〉은 등장인물들 간 관계의 회복에 주목하여 그려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점에 집중하여 자칫 소홀히

다를 인물들까지 세심히 살펴 인물들의 역할을 강화시킨다. 숙향 때문에 천상에서 상처 입은 설중매도 누락시키지 않고 지상에서 등장시키며 인물들의 연결고리로 마고할미를 등장시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 두 인물의 등장을 통해 적강모티프가 모든 인물에게 고루 적용되어 적강의 순환구조가 완벽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인물들 간의 관계맺음에도 일정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핀 결과 〈숙향전〉은 적강모티프가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고 서사에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강의 특징으로 II장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들을 〈숙향전〉 전 서사에 걸쳐 고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숙향전〉은 천상과 지상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숙향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천상의 죄가 지상의 벌로 연결되어 진행되기에 유기적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점, 또한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와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순환구조를 지녔다는 점과 그 성격은 천상계와 지상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넘나들기에 초월적이며 환상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 이러한 조건을 골고루 갖춘 것이 〈숙향전〉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적강의 논리가 〈숙향전〉만큼 치밀하게 구조화된 고전소설은 흔치 않다. 왜냐하면 II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경관 〈심청전〉 정도가 그나마 적강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서사가 진행될 뿐 〈숙영낭자전〉, 〈백학선전〉, 〈김희경전〉, 〈유문성전〉은 〈숙향전〉과 같은 치밀한 적강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강을 목적으로 사용한 〈숙향전〉에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적강의 구조가 큰 틀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면 위의 작품들에서는 주인공의 비범성을 강조해 영웅성을 강화하거나 애정성취를 돕기 위해 단편적으로 주인공에게만 적강이 점점 치중되고 그 밖의 인물들에게는 상실되거나 약화된 것이다.

이처럼 적강의 구조와 논리가 서사 진행에서 점차 약화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필연적 관계망에 대한 인식의 변이, 즉 이원적 세계관의 약화라 볼 수 있다. <숙향전>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적강의 논리’는 천상계와 지상계 사이의 인연이 전제가 된 탄탄한 이원적 세계관에 근거한다. 현생-지상에서의 모든 인연과 사건은 전생-천상에서의 인연에 기인하며 천상에서의 인연이 역전되거나 변이되어 지상의 인연을 지배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천상계를 우위에 둔 이원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상계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인식은 소설사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소설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더는 천상의 세계, 전생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상-현실의 삶을 지배하는 천상계의 영향력을 믿지 않은 상황에서 소설 향유자에게 적강의 논리가 설득력과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즉 적강모티프가 당대사회 수용자의 필요에 의해 작품별 각각 다르게 변용되어 수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설의 서사에서 적강은 서사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고 주인공의 비범한 출생이나 애정 혹은 과업 성취의 근거로서만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숙향전> 에서 볼 수 있는 긴밀한 적강의 논리가 <숙향전> 이후 여타 적강형 소설에는 적강구조가 미비한 틀로 작용된 이유는 적강 자체 역할이 축소되었다기보다 천상계의 영향력을 믿지 않는 세계관변화의 한 단면으로 적강요소가 약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인 적강의 논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숙향전> 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는 적강의 순환적 구조를 온전하게 서사에 적용해 천상에서 엮힌 인간관계망이 등장인물들 각각의 지상형벌을 치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회복되어 가고 화해를 이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숙향전>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꽤 미묘하고 복잡하

다. 천상에서 적대적이던 이들이 지상에선 부모자식으로, 신뢰하던 이는 오해와 불신의 관계로 맺어져 그 속에서 원망과 갈등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천상에서의 반목과 대립적 상황이 지상에서도 계속되어 풀린 듯 맺혀있는 이들의 관계는 때론 오해와 불신으로 소통의 장애를 일으켰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이들의 갈등은 지상계의 벌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씩 해결되어 인물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또한 벌을 받는 당시 어린아이였던 속향이 그 벌을 끝냈을 땐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했듯 등장인물들도 속향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한다. 성숙해진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속향전〉에서 천상과 지상이라는 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이들의 죄와 형벌, 속죄하는 과정을 통해 인물들의 변모하는 모습과 내면세계를 세밀하게 보여준다. 주제의식을 염두에 둔 인물들 간의 관계망이 치밀하게 구조화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적장의 논리에 의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대동화합을 반영한 작품이 〈속향전〉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김동욱 소장본, 「숙영낭자전」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26, 보경문화사, 1991.

김진영, 「경판24장 본 심청전」,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김진영·차충환교주, 『숙향전 전집』 1, 도서출판 박이정, 1999.

동국대한국학연구소편, 「김희경전」, 『활자본고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동국대한국학연구소편, 「유문성전」, 『활자본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6.

우쾌재, 「백학선전」,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20, 인천대민족문화연구소, 1984.

2. 단행본

경일남,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의미, 역략』, 2002.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이우출판사, 198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4.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9.

신재홍, 『고전소설과 삶의 문제』, 역략, 2012.

이상택, 『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회, 1971.

- _____,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태학사, 2002.
- _____,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새문사, 200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4.
- _____,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2012.
-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연구』, 월인, 199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태학사, 2002.

3. 논문

- 김경미, 「숙향전 -‘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 김나영, 「장르별 심청이야기가 지니는 의미 지향」, 『판소리학회지』 19집, 판소리학회, 2005.
-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김진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적강화소의 기원 탐색」,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 박대복·이명현, 「유문성전에 나타난 갈등과 해결방식」, 『인문학연구』 33, 인문과학연구, 2002.
- 박일용, 「전기적 애정 모티프의 영웅 소설적 형상화 방식연구」, 『인문과학』 13,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 박하영, 「조선조 적강형 애정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숙향전과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 석사논문, 2002.

- 성현경, 「숙향전 연구」, 『동아연구』 27, 『서강대동아연구소, 1994.
-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3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 안동준, 「적강형 애정소설의 형성과 변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1988.
- 유승현, 「숙향전의 순환적 구조와 그 의미」, 원광대석사논문, 1999.
-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 이명자, 「숙향전의 사명으로서 천명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 논문, 2008.
-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5.
- _____, 「숙향전의 통과제의적 구조와 의미」 -신화적 구조와 세계관의 변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 2006.
-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 _____, 「숙향전 국문본의 특성과 계통」, 『민족문화연구』 26,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 _____,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장홍재, 「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의 보은사상」, 『국어국문학』 55-57, 국어국문학회, 1972.
-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08.
-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환상계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05.

조희웅, · 松原孝俊 「숙향전 형성연대 재고-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지연숙, 「숙향전 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한길연, 「매트릭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숙향전의 의미와 가능성」,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황쾌강, 「동양적 예정론과 소설의 구조」: 세창본 숙향전의 분석적 고찰, 『겨레어문학』 15, 건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ABSTRACT

Sook Hyang Jeon in relation between sin and punishment

Suh Shin-ae

Dep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ok Hyang Jeon>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date of writing, but it is comparatively earlier literary work among traditional novel assumed form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punishment and atone on the earth of Sookhyang, E-sun and the other characters caused by their sin on the heaven makes fundamental structure of <Sook Hyang Jeon>. In particular, <Sook Hyang Jeon>'s jeokgang was studied in the central axis in the discussion of the existing research, but it was not expanded to study about structure of sin and punish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 on relationship between sin and punishment in <Sook Hyang Jeon>.

In this thesis, saw examined a specific shape jeokgang each person and singularity before sookhyang attention the a novel

jeokgang and other works to find the features before sookhyang not reveal any difference between novel jeokgang similar to the sookhyang before and take a look. In result, it was verified the description of <Sook Hyang Je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in characters and other characters in the Heaven continue in the Ground. It is different with other general novels of Jeokgang which focus on only main characters. That is, writer progress the descri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in and punishment, positioning each character with Sookhyang as the central figure. The formal structure of the circulatory system of 'Jeokgang' -Heaven→Ground→Heaven- was realized carefully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Sook Hyang Jeon>.

So then, what is the thing that the writer want to show readers with <Sook Hyang Jeon>? Also, why writer realize so thoroughly <Sook Hyang Jeon> of all the characters in the crime and punishment lecture ever implemented in the framework? This is the thinking of contemporary ideas, or work with the person in the public consciousness because of the work would have been in contact. <Sook Hyang Jeonn> have been granted to the characters in their attitudes towards crime and punishment, regardless of the severity refuse to accept his fate without. Happening on the ground temporal one, ie, suffering and punishment because of their heavenly sin avoidance or deny that it does not understand and is compliant. This concept contemporary of the medieval way of thinking and also directly concerning that can be seen. The chacters of <Sook Hyang

Jeon> accepted their situation as caused by their Heaven's 'Eob'. As a result, <Sook Hyang Jeon> utilized a literature tool 'Jeokgang frame'-the sin in Heaven and Ground- and was able to draw a full attention from the public whom believed in this kind of world view regarding dualism.

The author created <Sook Hyang Jeon> based on human kinds awareness in original sin, which gives account on present life's hard time is related to previous life's 'Eob'. The characters who were heavens offender enduring this worlds sin is same what revealing mankind's adversity that we face and had no shortage to attract public interest.

Like above, it was the author's delicate intent to chronically reproduce character's tangled relation ranging from Heaven to Ground. The writer had set up the situation in which each individual pay back the 'Eob' in Heaven on the Ground that also accompanies the problems within the individual's to be returned. Sin and punishment is also differently granted so as to fill in for other's short comings, hurt one another in the manner of being perpetrator, victim and offerer making a relationship facing hostile and opposing situation are alleviated by being punished.

In other words, absence in communication up in Heaven owing to 'Eob' was able to be relieved in the course of undergoing the Ground's 'Eob'. In conclusion, the life of characters in <Sookhyang jeon> turns in to harmonized and stable life they had hoped as every each of them go through sin due to their Haven's sin with the help

celestial aids. So as to put it, in the logic of 'Jeokgang', recovering the impair relationship among main characters and bringing the ultimate peace and unification, is the fiction <Sook Hyang Jeon>.

Keyword: <Sook Hyang Jeon>, Jeokgang, Sin in the Heaven, Punishment in the Ground,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Dualistic world view, Organic relation, Absence of communication, Recover the relationship